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PR 15 1983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108–1109 1983년 4월 15일(금) & 16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April 15 & 16,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23일밤 하버·캐슬호텔에서 열릴 미인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동대회를 위해 주역으로 뛰고 있는 4명의 집행위원이 14일 본사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이석현 사무국장, 남지연 부위원장, 윤방현 위원장, 이광민 심사위원장.

원충연씨 토론토에 온다

사형수로 15년간 옥살이를 한 5.16혁명 산증인

◆원충연씨

5.16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으로혁명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했다가 그 뒤 반혁명사건을 주동, 혁명정부 전복을 꾀했던 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15년간 복역했던 혁명의 산증인 원충연씨(61세, 당시 육군대령)가 평신도 전도자가 되어 캐나다에 온다.

그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저녁 7시30분부터 새한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전도간증집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토론토를 방문한다.

원씨는 65년부터 81년 3월까지 15년간 옥중생활동안 많은 체험을 했지만, 구속직후 신앙면에 영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복음전파로 옥중생활을 했다고 출감직후 고백했다.

출옥후에 제주도에서 은거하며 옥중회고록 "이 줄을 잡아라"를 집필,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부터 사형수로서 죽음을 앞두었어도 신앙으로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산 경험을 들려주고 있다.

원 씨 는 일본중앙대법대, 서울대 대학원 정치과 졸업, 서울문리대 강사, 미보병학교·참모대학 졸업, 육본정훈차감, 서독대사관 무관,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등의 다채로운 경력을 소지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승동교회 집사로 복음전파에만 전념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를 두고 있으며 출가한 딸이 현재 토론토에 살고 있다.

1983 미인대회

준비작업 완료

전례없이 푸짐한 상품·입장권매진

엘레노·휴처 모델학교등 70여업체 협찬

1주일후로 다가온 미인대회를 앞두고 미인대회사무국(토론토 한국일보사)과 집행위원회(위원장 윤방현)는 마지막 점검상태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미 10명의 심사위원을 선정, 14일 제1차 심사위원회의를 가졌고, 프로그램제작에 착수(이광민 심사위원장)했으며, 후보들에게 입힐 수영복과 상품등을 마련했다.

연예인 선정도 끝났고, 권순근악단은 조용한 배경음악 연주 연습을 하는중이다.

6백석의 입장권은 매진상태.

카운드·다운이 시작된 미스코리아대회 관계자중 주역으로 뛰고 있는 4명의 집행위원이 말하는 대회의 이모저모는 다음과 같다.

◉참석자◉
윤방현 집행위원장
남지연 동 부위원장
이광민 심사위원장
이석현 사무국장
(1983년4월13일 본사회의실)

윤방현 : 1년만에 열리는 대회라 미인후보자가 없을까봐 가장 걱정했더니 벌써 7명이나 나와 크게 안심했읍니다. 멀리 에드몬톤에서도 1명이 나오고, 푸짐한 상품을 준비해두기를 잘했죠?

남지연 : 예년의 예로 보아서 앞으로 2~3명은 더 나오지 않을까요?

이광민 : 제1회 대회때부터 관계한 경험으로 보면 후보자가 많아도 대회 진행에 힘들지만, 후보자가 더 좀 많이 나와서 아름다움을 겨뤄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아름다운 2세를 가졌다는 것은 1세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석현 : 바로 그렇습니다. 미인대회는 겨낮은 육체미대회가 아니라는 점을 일부 고루한 사고방식의 인사들은 터득해야 합니다.

윤방현 : 네, 부모들은 하나님이 준 미(아름다움)를 부정적으로 생각치 말고 자녀들이 그같은 재질을 마음껏 살리도록해야 합니다.

이광민 : 얼굴이나 몸매만 좋아서 미인이 아니라 몸가짐, 마음씨등도 여성미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나타내는 것은 여성만의 특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미인대회는 모국대회와 연결되어 있으므로(캐나다 대표가 모국본선대회에 출전한다) 자녀교육상으로도 의의가 있읍니다.

또 출전자의 탈렌트가 외부에 발표됨으로서 재능이 발견되고, 자기의 진로를 찾으며, 직업을 갖게도 됩니다. 미인대회는 무엇보다도 자기재능발견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3면에 계속)

13.5%로 인하

소비자 대출금리, 로열뱅크

로열·뱅크는 13일 소비자 대출금리를 14%에서 13.5%로 인하, 79년 9월이후 최하수준이 됐다.

로버트·어팅 로열뱅크 부회장은 이날 이같은 금리인하가 14일의 중앙은행의 주별 금리발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오늘의 시세〉
$1.00=621.58원
$1.00=US 81.08센트
금(런던)=$529.82
은(토론토)=$13.90/oz

오늘의 예금금리(4/6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오푸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 %		7.25%
90일	8 %		7.25%
180일	8.5%	8.25%	7.75%
365일	8.75%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최근 한국에서의 금융스캔들 정치억압에 대한 언론의 반작용"

—시카고 선타임스 보도—

최근 한국에서 물의를 빚고있는 금융스캔들은 기업인 자체의 부패보다 정치적억압에 대한 언론의 반작용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시카고 썬타임즈지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인합섬 경리이사의 사망과 때를 맞춰 정부가 대기업체의 토지매입건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하면서 기업간부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토지스캔들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언론인들이 복수심정으로 정치문제와 관련된 금융문제를 깊게 파고들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장여인 스캔들이후 대기업 재정상태가 지극히 빈약한 것에 대한 민심동요를 우려, 최근에서 삼보증권이 개입된 또 다른 금융스캔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정일 實權잡게되면 제한된 開放政策펼것"

北韓연구 전문가들

(서울)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일은 폐쇄정책의 한계성을 느껴 앞으로 실권을 잡게되면 점진적이고 제한된 개방정책을 펼 것이라고 북한연구전문가들이 분석했다.

김정일은 현재 북한정권에서 명실상부하게 제2인자로 공산당을 통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 김정일이 71세의 김일성의 후계자로 확정되는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김일성의 나이에 따라서 권력이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북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정일이 정권을 이양받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제한된 개방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개방정책과 함께 한국에 대한 도발도 시험하게 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로렉스 란콤화장품 보너스쎄일 귀국선물
오메가시계 45%~50% 할인
은하보석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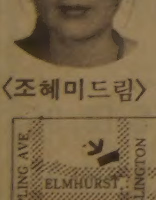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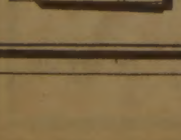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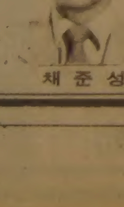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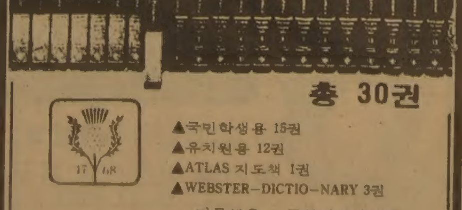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Angel Fine Art Studio
자녀들의 미술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어린이들의 정서교육과 소질개발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였읍니다.
개강에 앞서 스튜디오를 오픈하오니, 관심있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관을 바랍니다.

〈조혜미드림〉
◈오픈리셉션
1983년 4월22일(금)
오후5시~9시
◈장소•
2428 Islington Ave.
(Elmhurst Plaza 2층)
Suite 7A
◈전화• 745–8236


□개강일시
4월30일(토) 매 토요일
오전10시부터 3시간씩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채 준 성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집매매〉
타운하우스
(1) 2베드룸(영×스틸)
완전히 새로 장식. 지하실 완전 꾸밈.
(2)3베드룸 (베이뷰×존)
지하실 완전꾸밈. 학교, 쇼핑센타, 버스 2분거리.
냉장고, 오븐, 세탁기포함.
(3)4베드룸(베이뷰×Royal orchard)
새카펫, 부엌에 식당달림.
냉장고, 오븐, 세탁기, 디쉬•워셔포함.
❖급매이오니 좋은 조건과 가격에 드릴 수 있읍니다.
Please call Mr. RON BATT
☎(B)886–2840
(R)221–5437
RE–MAX CENTRAL REALTY

세계 최고의
부리타니카 백과사전

총 30권
▲국민학생용 15권
▲유치원용 12권
▲ATLAS 지도책 1권
▲WEBSTER–DICTIO–NARY 3권
•다른책을 구입하시기전에 부리타니카 백과사전을 구경하세요.
83년판 가격인상($200)이 있사오니 자녀교육을 위해서 필요하신 교민께선 4월18일 전에 연락바랍니다.
☎ (416)469-1350, 463-7423
이 송 원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교회건립자금 몽땅 빼내 도박에 탕진코 자취감춰

시카고「미드웨이장로 교회」 "곶감꼬치 빼먹듯"7만 5천弗 引出

(시카고지사)시카고 미드웨이장로교회(담임 정길수 목사)의 건축위원회 회계 배영일씨(49)가 성전기금 전액인 7만5천달러를 임의로 인출, 도박에 탕진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교회는 자체건물을 갖기위해 75년부터 온교인이 헌금해 왔는데 회계인 배씨가 이돈을 모두 경마장에서 도박으로 써버렸다는 것.

한편 교회는 배씨가 사건발생후 자취를 감추자 피해금액 환수와 배씨 소재파악을 위해 FBI와 경찰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배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기집(싯가 18만9천달러상당)을 팔아 헌금전액을 변상하겠다고 했으나 협상일인 지난 8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난 3월3일 교회측은 새 교회 중도금지불을 위해 배씨에게 전화로 적립금 인출을 요구했으나 배씨부인이 「남편이 서울에 가고 없다」고 대답, 미심쩍어 은행에 조회해본 결과, 배씨가 수차례에 걸쳐 헌금 7만5천달러를 모두 인출해간 것을 알아냈다.

돔스태디움 건설

CNE내에 1억5천만달러 들여

온타리오 메트로 기술위원회는 13일 CNE안에 65,000석의 돔스태디움과 무역센타의 건설계획안을 승인했다.

이 계획안은 5월이나 6월초 정책위원회에 상정되며, $1억5천만이 소요되는 스태디움 건설은 늦어도 84년말에 시작되어 85년말에 완공하게 된다.

또한 무역센터는 현재 익스비션스태디움쪽에 건설될 공산이 크며, 이 경우 Automotive관 북서쪽일부와 음악관등이 헐리게 된다.

그외의 기존 건물들은 대개 남게된다.

한편 기술위원회는 무역센타위에 500객실의 호텔건립문제도 고려중이다.

CNE 총감독인 윈필드씨는 가급적이면 금년도 CNE전람회를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이유로서 현재 불로바타워의 층계와 엘리베이터가 구조적으로 불안전하여 폐쇄 직전에 놓여 있음을 들었다.

만약에 CNE안에 돔스태디움이 건설될 경우 네번째 건설이 되며, 처음 2번은 모두 불타없어졌다.

자매 1등입상

Peel 뮤직훼스티발

오크빌에 거주하는 최세라양(10세, 4학년)과 동생 제니양(7세, 1학년)이 지난 8일 열린 제56회 Peel 뮤직훼스티발의 첼로부문에서 나란히 입상했다.

현재 Sheridan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최연소멤버로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언니 세라양은 Novice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동생 제니양은 언더나인(Under 9)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들 자매는 최승남씨와 김영자씨(미시사가한글학교장)의 4남매중 장녀와 차녀.

형제가 과학전에 모두 1위

세인트·제롬스쿨 원종현, 종민군

교포가정의 두형제가 최근 실시된 과학전에서 두각을 나타내 형은 메트로·토론토 과학전에서 최고상을, 동생은 노스욕과학전에서 1등상을 각각 차지하여 화제.

이들은 사진업에 종사하는 원명희씨(40세, 3390 Keele St.)의 아들인 St.Jerome스쿨에 재학중인 종현(13세, 7학년)군과 종민(10세, 5학년)군.

연례적으로 열리는 이 과학전은 수학, 물리, 물상, 기계등 일반과학부문을 총망라한 대규모행사로 메트로·토론토에서 약 2만명이 응모했다.

종현군의 출품작품은 "Colour Math(색갈을 통한 산수)"라는 기발한 연구로 유치원으로부터 1학년 정도 학생들의 산수능력개발을 목적으로 1에서 10단위까지의 숫자를 색갈기호로 표시해 미진아들에게 시각을 통해 암기시켜 계산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 연구의 동기는 신호등(traffic signal)의 색갈분류에서 착상하여 약 6개월의 연구를 통해 실제 학교에서 추천한 미진학생들에게 적용 실습, 그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상의 영예를 따냈다.

종현군은 13일 본지와의 회견에서 "앞으로 인간환경개선에 일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포부가 대단하다.

한편 사립학교 교육위원회에서는 원군의 연구를 약간 보완해서 산수교육에 시도할 방침이다.

또한 동생 종민군은 "알콜과 안티프리즈(Alcohol vs Anti-freeze)의 비교연구로 1등을 차지했다.

◆메트로·토론토 과학전에 나란히 1등의 영예를 차지한 두형제, 형 종현군(오른쪽)과 동생 종민군(왼쪽).

장래의 포부는 신부나 과학도가 되는 것이라고.

이 두형제는 금년 뿐만 아니라 예년에도 각종 과학전에서 많은 수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유회자문하생 발표회

30일 로열·콘서버토리홀

음악박사로 토론토대학교 로열·콘서버토리 교수인 유회자씨의 피아노 문하생 발표회가 오는 30일(토) 하오 8시15분부터 콘서버토리 컨서트·홀에서 열린다.

유교수의 제자 17명이 그동안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이번 발표회의 연주곡목은 러시아 민요로부터 베토벤소나타에까지 다양하며 학생 1명이 평균 2곡씩 모두 30여곡을 연주한다.

유교수는 13일 이번 발표회는 로열·콘서버토리가 각 교수들에게 격려의 뜻으로 연 1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음악학도들이 경쟁의식 또는 과시보다 연주가로서 성실한 자세를 갖추고 정신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년전부터 컨서버토리에서 교편을 잡은 유교수는 5월15일에는 오르갠 문하생발표회도 가질 계획이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이번 피아노 발표회 연주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승현, 장미혜, Elizabeth Vogel, 유예훈, 정티나, 정글렌, 박에바, 백대일, 박제인, 김제이슨, 김수잔, 한화정, 정메리, 박준, 백쏘냐, 정양순, 기애경.

우편처리과정 시범

토론토 이스트지역 우편처리소

캐나다 우편국의 토론토 이스트지역 우편처리소(Letter Processing Plant)에서는 오는 4월18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저녁 6:30부터 9:00까지 일반에게 우편처리과정을 공개하며 모든 체신요령을 시범한다.

또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우편번호(Postal Code)제도가 어떻게 활용되며 처리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장소는 280 Progress Ave.(at Midland Ave) Scarborough.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윤정자개인전

21일부터 3주간 메디슨갤러리

교민 서양화가 윤정자씨의 개인전이 오는 21일(목)부터 5월11일까지 3주간 메디슨갤러리(334 Dundas St, W.)에서 개최된다.

◆윤정자씨

이번 전시회 출품작은 주로 추상계열에 속하는 작품 25점이며, 화랑 오픈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11시부터 5시까지이며, 리셉션은 21일 하오6시30분부터 화랑에서 개최된다.

이대 미대 조각과를 65년에 졸업한 윤씨는 68년 이민, 73년 온타리오·칼리지·오브·아트(OCA)를 졸업한 뒤, 직물수예(Weaving), 태피스트리(Tapestry)등 다방면의 미술을 연마해왔다.

대표작품으로는 서울 혜화동 로타리에 있는 고려의대의 전신, 수도의대 병원 건물입구의 모자익등이 있다.

컴퓨터 시스템 스페시알리스트인 윤여경씨의 부인으로 앞으로 미국, 한국, 유럽등지의 순회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75년의 직물수예(Weaving)전시회에 이은 두번째 개인전이다.

전시회입장은 무료이며, 전시장소인 매디슨·갤러리는 아트·갤러리·오브·온타리오(Art Gallery of Ontario)건너편에 위치해있다.(전화 977-4060)

교민동정

◆김창호=지난9일 부인 문옥화씨와 사별했다. 48세의 문여인은 고혈압으로 오타와 제너럴·하스피틀(종합병원)서 이날 상오11시 사망했다.

오타와 한인회장 이태운씨등 많은 교민이 11일에 있는 장례식에 참석해준데 대해 고마운 뜻을 표했다.

◆김용순(무용가)=지난11일 마운트·사이나이병원에서 7.9파운드 무게의 공주를 순산, 현재 스코어 1남1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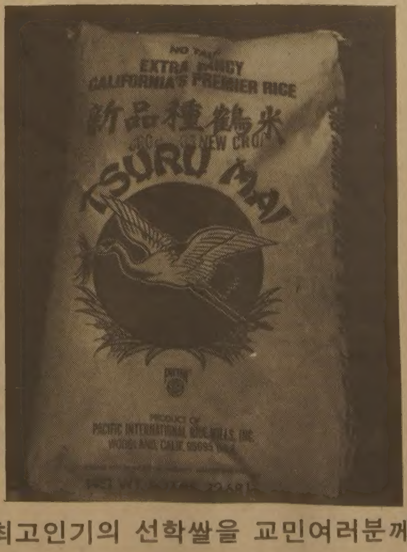
몸이 회복되는대로 그동안 쉬어온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욕에 꽉찬 김씨는 우선 5월 중순경 YMCA에서 무용반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김 금 선씨

◆김금선="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옛문자를 그대로 증명하려는 듯 40년간 홀몸을 지켜온 김금선여인(62)이 금년도「장한 어머니」로 부상했다. 김여인 주위의 친구들은 김여인이 24세때 한살 연하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재가하지 말라"고 한 유언을 지켜 수절했고, 딸과 유복자를 키웠다고 말하면서, 훌륭한 부인이요, 어머니라고 칭찬했다. 16세때 15세 남편과 결혼했다가 한창 젊은시절 홀몸이 된 김여인은 8·15해방때 6살된 딸과 4살된 지창환씨(토론토 하보드·스트릿 거주)씨를 데리고 고향 평남서 월남, 4년전 토론토로 왔다.

한밭식품

제6주년기념 사은 대매출



최고인기의 선학쌀을 교민여러분께
최저의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언 한밭식품을 시작한지 6년이 흘렀읍니다. 그동안 많은격려와 애용에 보답코자 다음과같이 교민여러분께 봉사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임수철·설동란 올림

4월말경
고국상품
대량입하

농장김치도매

토론토 전역
주문배달

466 SOUTH SERVICE RD. 274-5401

□국보	$21.95
□경기미20Kg	$12.95
□삿뽀로라면(Box)	$7.95
□노랑태 햇조기 33Lb	$39.95 (한박스만 제한)
□가도야참기름	$7.95
□낙지 2.2Lb	$7.99
□회조개깐것 2.2Lb	$7.99

□갈비 Lb당	$1.49 (통갈비에 한해서만)
□물오징어 Lb당	89센트
Box당	$11.75
□물해삼회 Lb당	$5.50
□멍게회 Lb당	$4.50
✣한국산고추장용고추가루 김치용고추가루 Lb당	$3.99

CAN 코카콜라 / CAN 펩시콜라	$5.99
SUNKIST(88개)	$12.95
사과(Red Delicious)(88개)	$16.95

✣감자, 계란, 양파, 도산매

17개항 공동성명 발표후 폐막

제2회 한·카경제협력위원회 연례회의

한·카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의 무역증진과 이를 통한 쌍방의 이익증대를 통한 양국우호증진에 힘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무역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쌍방이 양국정부에 건의할 것등을 합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3일 4일간의 제2차 합동연례회의를 폐막했다.

한·카 경협 한국측 의장 구평회씨와 캐나다측 의장 B.A.베네토씨의 서명으로 발표된 17개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에서 한국대표단은 캐나다정부가 일부 한국상품에 가하고 있는 무역제한조치를 완화하도록 정부당국에 건의해줄 것을 캐나다측 대표들에 요청했다.

양국대표들은 또한 양국우호증진에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에 합의, 캐나다 대학들에 한국학과 설치및 한국대학들에 캐나다학과 설치 추진에 관심을 표명한 한편 문화·학술·언론보도 방면의 교류강화에 힘쓸것도 합의했다.

양측대표단은 또한 1차회의에서 합의된 한국측의 캐나다산 소맥과 채종 수입및 캐나다측의 한국산 합판수입등의 문제에 만족할만한 진전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13일 상오 분과별 토의를 끝낸 양국대표들은 이날 하오 각 분과별 토의내용 보고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측의 구의장과 캐나다측의 베네토의장은 앞으로 3년뒤인 85년까지 양국의 교역량을 현재의 2배인 20억달러의 수준까지 끌어 올리도록 서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장은 또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문화교류에의 관심및 양국대학에 한국학과·캐나다학과 설치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학과는 현재 토론토대학(UT)에서, 캐나다학과는 연세대학에서 각각 설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온타리오 담배세법 위헌

주정부 법개정 고려

온타리오주의 담배세법의 일부 규정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알버타주에서 온타리오주로 담배를 들여오면서 2백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6명이 기각판결을 받았다.

13일 온타리오주 지방법원 로버트·오스번판사는, 온타리오주가 담배세를 도매업자로 부터 징수하고, 도매업자는 이를 다시 소매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간접세로서, 캐나다 헌법상 간접세는 연방정부만이 징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프랭크·밀러 온타리오주 재무상은 만약 주정부가 항소재판에서도 질 경우 온타리오주법사의 담배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타리오주는 연간 4억5천만 달러의 담배세를 거둬 들이고 있으며, 가격에 대한 세율은 3개월만에 조정된다.

〈1면에서 계속〉

미스코리아좌담회

남지연 : 여자가 주역인 대회를 남자들에게만 맡길수 없어 대회에 관계했읍니다. 출전자들은 등수를 다투기보다 친구를 사귀고 자기 특기를 발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점점 동양인의 미에 관심을 가져서인지 유명한 엘레노·휴처 모델학교도 이번 대회를 지원하지 않읍니까?(입상자에게 학교등록금을 면제해 줌)

윤방현 : 70여개 업체나 단체가 협찬해주고, 이중에는 굴지의 캐네디안회사들이 여럿 있는 것도 이 대회의 특색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아진 증거이기도 하고 한인사회의 비중이 커졌음을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행위원회는 될수 있는한 상품을 후보자들에게 골고루 주어 낙선자들에게도 실망이 크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읍니다. 또한 한인사회 여러단체에서 행사때마다 도가 넘치는 경품을 내놓고 복권을 파는 사례가 일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대회서는 약간의 도어·프라이즈로 경품추첨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경품권을 현장에서 파는 일은 없읍니다.

이석현 : 많은 협찬자들은 대부분 자기 협찬품이 「진」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데 너무 「진」에게만 치우칠 수 없지요. 현재 「진」에게 갈 상품가치는 약 6천달러어치나 됩니다.

이광민 : 예년에는 재정확보가 어려워 후보들에게 많은 부상을 주지 못했지만, 출전미녀들이 물욕에서 대회에 나와서는 안됩니다.

남지연 : 그러나 후보들에게 잘해주어야지요. 연한 하늘색 수영복을 출전자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도 주최측의 하나의 서비스랄까요? 물론 수영복(원피스로 등이 파졌음)을 통일시키는 것이 심사에도 도움이 되지요. 과거에는 없던 일입니다. 생각같아서는 구두도 한켤레씩 주어 통일시키고 싶지만요.

이석현 : 후보자들은 대회 하루전 즉 22일 대회장인 토론토 힐튼하버캐슬 호텔에 합숙시키는 것도 특이하지요. 자기들 끼리 같이 밤을 지내면서 우정도 쌓고 서로 모르는 점도 배우라는 뜻이지요.

남지연 : 그렇읍니다. 추억에 오래 남으리라 봅니다.

윤방현 : 좌우간 돈드는 일이 많더군요. 그래서 협찬없이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읍니다. 미녀들 연습은 이틀전인 21일에 시작합니다.

이광민 : 네, 훈련이 필요해요. 나는 과거부터 미녀훈련을 여러번 맡았읍니다. 걸음걸이, 대담하는 태도, 표정, 시선의 각도등을 가르쳤읍니다. 내가 무대생활관경험(연극배우)를 살려서지요. 예를들면 「될수 있는한 관객을 향해 등을 돌리지 말라」든가, 무대위를 걸을때 관객을 쳐다보면서 걸으라든지.

남지연 : 기본적 에티켓부터 가르치는 모델학교에 못간 사람에게는 걸음걸이등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겠군요.

윤방현 : 여담이지만 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잠간씩이라도 모델학교에 다녀오라고 권하고 싶읍니다. 배운것을 평생을 써 먹으니까요.

〈다음날 계속〉

金聖鍾작

최가의 恐怖의 추리소설

흑5의 사나이 〈212〉

헤로인 ⑦

日人이 화장실 간사이 8호실 급습

그는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다. 안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우고나서 밖으로 나왔다. 기다리고 있던 여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미행하고 있는 남녀가 들어간 독실은 중간쯤에 있었다. 독실은 모두 해서 15개였는데 그들은 8호실에 들어가 있었다.

독실칸은 열차의 맨 뒤에 달려 있었다. 그 앞이 식당차였고, 식당차 앞은 일반객차로 계속 이어져 있었다. 화장실은 식당차와 독실칸 사이에 있었다.

그는 통로를 지나 맨뒤로 걸어갔다. 8호실 앞을 지날 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맨 뒤에 다다라 문을 열자 찬바람이 몰려들어왔다. 밖으로 나갔다. 날은 이미 환히 밝아와 있었다. 몸이 금방 얼어붙어왔지만 그는 그대로 거기에 서있었다.

그의 눈은 계속 통로와 화장실 쪽을 감시하고 있었다.

한 시간이 지났다. 몸이 얼어붙어 감각마저 무디어졌을 때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 일본인이 통로로 나오는것이 보였던 것이다.

일인은 화장실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문을 노크한 다음 담배를 피워 물었다. 안에 사람이 있었다. 잠시 후 안에서 노인이 한 사람 나왔다. 일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객의 사나이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추위에 얼어붙어 파랗게 질린듯이 보였다. 그는 잠시 어깨를 추스리며 서있다가 통로를 걸어갔다.

이윽고 8호실 앞에 이르자 그는 멈추어섰다. 왼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으로 잡아당겼다. 남자가 화장실에 간 다녀올줄 알았던지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그는 안으로 재빨리 들어섰다. 그리고 급히 문을 닫았다.

『누구세요?』

침대 위에 비스듬히 드러 누워있던 여자가 상체를 일으키면서 물었다.

朴 男 그림

경악한 표정이었다.

『조용히!』

그의 손에는 어느새 피스톨이 들려있었다. 총신이 긴 것이었다.

『다, 당신은…누, 누구세요?』

여자는 놀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벌거벗은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도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야 그것을 알고는 그녀는 황급히 시트를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그는 소파에 앉아 말없이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가 다시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채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다.

차창을 커튼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실내는 완전히 밖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었다. 여행하면서 여자와 즐기기에는 안성마춤이었다.

문이 열리고 일인이 들어왔다. 안으로 들어선 그는 문을 닫기전에 객의 사나이를 발견하고는 도로에 뛰쳐나가려고 했다.

『그 자리에 서!』

그러나 일인은 듣지 않았다. 그가 뛰쳐나가는 것과 동시에 피스톨이 불을 뿜었다.

숙하는 소리와 함께 일인은 뒤로 나뒹굴었다. 소음 피스톨이라 그 이상의 소리는 나지 않았다.

객의 사나이는 급히 문을 닫아건 다음 다시 소파에 가서 앉았다. 그 움직임이 침착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리고 민첩했다. 조금치도 빈틈이 없는 냉혹한 행동이었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風聞·人脈을 캔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게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사람을 찾습니다

■찾는사람 : 이종혜
■생년월일 : 양력 1943년6월9일
음력 1943년5월7일
■체 중 : 48Kg
■사 례 금 : 300불(거처를 알려 주시는 분께)

한국서 편지(어머니, 동두천, 옥경, 부산)가 왔고, 모든 서류가 나왔소.
외국땅에 와서까지 왜 이런 행동을 하여 찌짓고 살려고 하며, 내 가슴에 더이상 상처가 없게 하여 주오. 당신도 자유의 몸이 되려면 속히 소식을 알려야 되오. 당신의 울분을 이해하오.
귀국하려 하오. 믿음의 양심으로 돌아오시오.
연락처 : (403)932-3518
(403)932-6227
(저녁6시 이후)
연락인 : 한승한, 구학서

캐너더에서 제일 큰 WEST EDMONTON MALL
한국인 고급상점 입주자 모집
1. 화장품
2. 구두
3. 고급양장점
4. GIFT
5. CATIER 후렌차이즈
6. 털옷점, 악세사리, 보석상, 캔디등…
▣입주 : 83년 8월초
토론토의 EATON CENTRE보다 더 규모가 크고 화려한 고급상품만을 취급하는 캐너더 최고의 백화점임.
연락처 : 1-403-487-4393 김 용 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새로 머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십시요。

YES IT'S TRUE . . .
우리 전문가들은 당신의 원하는 만족한 결과의 85%이상 비율로 성공해 왔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머리털에 대한 모든 분석과 최신시설로써 머리털성장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당신의 머리털 손실을 감소해 드립니다.
우리훈련된 전문가는 머리털의 근본문제를 해결합니다.
머리털이 빠지는 원인을 찾아 자신을 갖고 치료합니다.
고민 있으신분, 당장 연락바랍니다.
You're only your hair to Gain!
◉미리 약속시간을 정하십시요.
▲매일(월~금) : 오전11시~오후8시
▲ (토) : 오전9시~오후3시
'HAIR RESEARCH CENTRE'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波瀾萬丈「이철수 드라머」

억울한 獄살이「10년 敎訓」과 석방후의 問題點

④

결정적 證人 스티븐 모리스씨

이철수씨에게 제2사건(옥중정당방위살인사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는 듀엘교도소에서 종신복역수로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그는 제2사건으로 하마터면 샌퀸틴교도소 개스사형실에서 처형될 뻔 했으나 그사건이 한가닥 생명의 빛을 주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나 제2사건으로 인한 재판심리중에서 제1사건(차이나타운갱살인사건)의 첫번 재판이 공정치 못했다는 사실을 변호인들이 발견해내 전화위복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철수씨의 구명에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닌 사전목격자들의 투철한 증언정신이 살아있었다.

스티븐·모리스(Mr. Steven E. Morris)씨가 바로 결정적 증인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차이나타운 갱살인사건현장을 가장 자세하고 오랫동안 목격(약35초정도)했으며 사건발생전 범인들이 타고온 차량(캐딜락)도 보았고 범인도 만났던 증인이었다.

제1사건 첫재판에서는 모리스씨가 완전히 무시되었던 것이 훗날 밝혀져 재심청원이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1973년 6월3일 일요일 하오7시께 (이때가 살인사건 발생 30분전) 스티븐·모리스씨는 친구4명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입구에 자동차로 도착했다.

그가 탄 자동차는 마침 앞에 주차한 고급자동차와 약간 범퍼끼리 스쳤다.

모리스씨가 자동차에서 내릴 때 앞의 흑갈색 캐딜락승용차에서도 20대 중국계청년들 3명이 내렸다. 이들은 모리스씨가 타고온 자동차를 보면서 중국어로 불평을 털어놓았다.

자연히 모리스씨는 이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다. 곧이어 중국계 청년들은 차이나타운으로 들어가 버렸다.

모리스씨도 친구들과 함께 윈도우쇼핑을 하면서 차이나타운으로 향했다.

모리스씨 일행은 그랜트 애비뉴와 퍼시픽애비뉴 교차로 근처에 있는 루이스(Louie's) 식당에서 저녁을 하기로 작정하고 바로 식당 이웃집 제과점에 왔을때 제과점 유리창을 통해 갑자기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과 함께 총소리와 비슷한 아주 둔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가 얼굴을 돌려 길거리를 보았을 때 바로 자동차 주차시 만났던 3명의 중국계청년들이 무슨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검은 복장의 청년이 오른손에 총을 들고서 앞의 청년의 뒷모습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다. 모리스씨는 두번째 총격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총격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주위사람들이 몰려들때 모리스씨도 가까이 갔으며 땅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청년몸에서 피가 흘러나옴을 보았다.

범행현장에 총격을 받은 모리스는 다음날 신문(S.F. 크로니클)기사를 본후 바로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전화를 해 자신이 본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사건현장을 말해주었다.

다음날(6월5일) 모리스씨는 하오 5시쯤 샌프란시스코경찰국 프랭크·팔존(Mr. Frank Falzon)수사관(이철수제1사건수사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5분동안 통화로 다시 사건목격담을 들려주었다.

그 다음날도 팔존수사관은 전화로 다시 목격담을 증언청취했으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후 신문에서 한두번 사건수사기사를 읽은 모리스씨는 점점 이사건을 잊어버리게 됐으며 새로운 직업때문에 LA로 이주하게 됐다.

LA의 한 카테일바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던 스티븐·모리스씨는 차이나타운 사건이 있은지 5년6개월만에 이상한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73년 6월3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의 살인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듣고 싶다는 팀·롬슨(Mr. Thompson—Private investigator) 사립탐정의 전화였다.

팀·롬슨씨는 이철수 제1사건 재심청원을 위해 이철수후원회가 고용한 사립탐정이었다.

모리스씨를 찾기위해 롬슨씨는 1973년 당시의 캘리포니아주 전화번호부에서 「Steven Morris」라는 이름을 뒤져였다.

무려 6일동안 추적한 롬슨씨는 사건당시 북가주 리치몬드에 살았던 모리스씨가 LA 헐리웃 윌콕스 애비뉴에 살고있음을 발견했던 것이다.

모리스씨는 처음에는 증언을 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중국갱단들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다.

이철수후원회측과 변호인측의 간곡한 청원에 그는 마침내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서기를 결심했다.

「제2事件」없었다면「오늘」도 없었을것 그것으로 處刑될뻔했으나 生命의 빛이…

후원회가 고용한 私立탐정이 찾아낸 모리스씨 "李씨는 犯人아니다"… 이말이 그를 살려

◆ 이철수씨

▲이철수씨 제1사건의 발상지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현장. 이씨는 이사건으로 10년동안 무고한 옥살이를 치르었다.

드디어 79년 11월20일 상오11시 새크라멘토수피리얼코트 제7호법정(재판장 로렌스·칼튼판사)에 출두한 스티븐·모리스씨는 피고석에 앉은 이철수씨를 가리키면서 「이씨는 분명히 내가 본 범인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 증언을 들은 이철수씨의 얼굴에서 두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검찰측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변호인석과 방청석의 교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증언으로 검찰측이 원심재판때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은폐했다는 것이 확실시된 것이다.

이로부터 3년후 이철수씨는 82년9월3일 샌프란시스코재심에서 제1사건의 완전무죄가 확정됐으며 이 무죄가 지난 1월14일 제2사건 원심파기로 이어졌으며 끝내 3월28일 보석으로 자유의 몸이 됐던 것이다.

〈끝〉

이철수씨 사회 첫발 인력개발원 근무시작

○…10년만에 사회에 나온 이철수씨는 11일 상항인력개발원에 피트타임 클럭으로 처음 출근해 4시간 근무를 마쳤다.

이날 이씨는 전화받는일, 서류정리 그리고 타이핑등 업무를 처리했는데 『열심히 배워서 빨리 자립하겠다』면서 지도하는 직원의 말을 듣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씨는 파트타임으로 한달에 약4백달러 정도의 봉급을 받게된다.

한편 이씨는 10일(일) 불교사찰 여래사를 방문해 감사의 인사를 표했는데 이자리에 산호세로부터 아들을 보러온 어머니를 만나자 와락 껴안고 눈물을 흘려 주위사람들을 의아케했다.

이씨는 만류하는 주위사람들에게 『감옥에 있을때 자유의 몸이 되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막상 나와보니 사정이 서로 떨어지게되어면목이 없다』고 계속 울먹였다.

〈샌프란시스코지사〉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연재소설〉

혼돈 ②

글·이태준 그림·최미정

시민 여러분, 나는 떠납니다. 나를 달달 볶던 지배인, 당신은 나를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귀여운 딸에게 직업을 유전시켜준 불쌍한 우리 어머니, 이제부터는 나때문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처녀성을 짓밟은 의붓 아버지…

분열증의 환자처럼 중얼거리며 시내를 굽어보던 나는 여기서 울컥 목이 메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같은 시간에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흔들어 버리고 시선을 테이블 위로 옮겼다.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스테이크와 원색의 사라다, 그리고 예쁜 유리컵에 담긴 와인이 이미 나와 있었다.

우선 나는 와인으로 메인 목을 축이고, 서서히 고기를 썰어 먹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흘러나오는 멘델스존의 바이얼린 협주곡을 들으며 오물오물 씹어서 꾸역꾸역 삼켰다.

공장에서 하루 열두시간의 고된 노동으로 지쳐 돌아오면 나는 밥숟갈을 놓자마자 무너지듯이 쓰러져 잠을 잤다.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며 부르는 주정뱅이들의 노랫소리와 고함소리도 아늑한 자장가의 멜로디로 느끼며, 깊고 깊은 잠에 곯아 떨어졌다. 새벽 일곱시에 고정시켜 놓은 패종시계소리와 옆집사람들이 다 깰 것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소리가 아니고는 어떤 소음도 나의 잠을 방해하지 못했다. 보통 밤 1시가 넘어서 시작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깊은 잠속의 나를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게 했다. 일어나서도 나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끄덕끄덕 졸다 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는 어머니의 발길에 채인 적도 있는데, 싸움의 종말은 어머니가 방바닥을 치며 울고, 아버지는 문을 부수고 뛰쳐나가는 것이 끝이었다.

한번 나간 아버지는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졸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무거운 짐을 벗은 것같이 마음이 가벼웠다. 어머니는 몰라도 최소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편이 훨씬 좋았다. 나는 그가 두렵고 무서웠다. 특히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는 더욱 그랬다.

그와 나는 같이 살면서도 거의 대화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 어머니를 매개체로 한 지붕 아래 기거함으로써 아버지 같이 보이고, 딸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형식상의 아버지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니다 만 고등학교의 학적부에 아버지의 성명란을 메우고, 직장의 가족상황란에 아버지로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다했다.

내가 그에게 당했던 때는 내나이 열여덟살때의 팔월 어느날이었다. 무더위가 밤에도 기승을 부려 서로 다닥다닥 붙은 서민주택에서는 아무리 창문을 열어놓아도 후덥지근한 열기와 끈적거리는 불쾌감이 가시지 않는 뜨거운 여름밤이었다.

공장에서 지쳐 돌아온 나는 그 더위와 불쾌감 속에서도 잠의 늪속에 깊숙히 가라앉아 있었다.

희미한 꿈속을 왔다갔다 하며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무거운 것에 눌리기도 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쫓기기도 하는 꿈이었다. 쫓길 때는 자꾸 팬티가 흘러내려 애를 먹었다.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도 무거운 중량감을 느끼고 호흡이 곤란했다. 잠자리를 바꾸기 위해 몸을 움직였으나 움직여지지 않았다. 깜짝 놀라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시커먼 물체가 나를 누르며 속삭이고 있었다.

「조용히 해라. 소리내지 마라. 너의 어머니가 깨면 큰일난다.」

가쁜 숨소리를 죽이며 속삭이는 소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소름이 끼치고,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다. 우선 반사적으로 바둥거려 보았으나 희망이 없는 반항이었다. 이 수치스러운 장면을 어머니에게 들킬 것같아서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바들바들 떨며 그가 하는대로 내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가 흘리는 땀이 내 얼굴위에 빗물처럼 떨어질 때 나는 하체에 강한 통증을 느끼며 손톱으로 그의 등을 찍어 눌렀다.

「어쨌든 당신은 나의 아버지지 않아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지 않아요!」

소리없이 울부짖으며 그의 등을 찍어 눌렀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 참으면 된다」

그는 쉰 소리로 애걸을 하며 나를 더욱 압박해 왔다. 진한 액체가 나의 양손 손끝에서 끈적거렸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다. 나는 처음으로 나의 친아버지를 불렀다. 한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마저도 나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온 나의 아버지를 힘없이 불렀다. (계속)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미국인 손님을 맞이할 때 상대방이 코우트를 입고 온 경우에는 우선 Let me take your coat.(코우트를 걸어 드리지요) 이와 같이 말한 다음 옷을 받아 걸어 주게 된다.

그리고 「앉으십시오」 Have a seat, please. 혹은 Sit down, please. 라고 자리를 권한 다음 「음료수를 좀 드릴까요?」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이와 같이 표현하면 된다.

추운 겨울인경우 「뭐 따끈한 것 한 잔 드시겠읍니까?」 할 때는 Can I get you something hot to drink? 하면 되고 반대로 「뭐 시원한 것 한 잔 드시겠읍니까?」 할 때는 Can I get you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말하면 된다.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물어오면 오렌지쥬스가 마시고 싶은경우에는 Yes, I'd like an orange juice, please. 하면 되고 7—up이 마시고 싶은 경우 Yes, I'd like a 7—up, please. 이와 같이 대답하면 된다.

A: Come on in. Have a seat, please.
B: Thank you.
A: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B: Yes, I'd like an orange juice, please.
A: Anything else?
B: No, thanks, that's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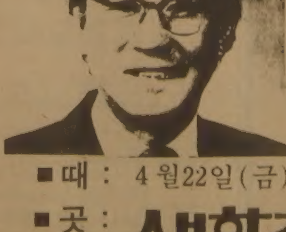
A:들어오세요. 앉으시죠.
B:감사합니다.
A: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B:네, 오렌지쥬스 좀 주세요.
A:다른 것은요?
B:아니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에요.

※anything else:그밖의 무엇. Ex. Will there be anything else?(다른건 없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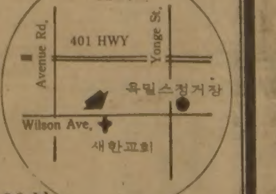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erton Grove 111 60053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됩니다. 가격은 권당 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 966—4050

사형수로 옥중15년 복음전파사명 받은 원충연 집사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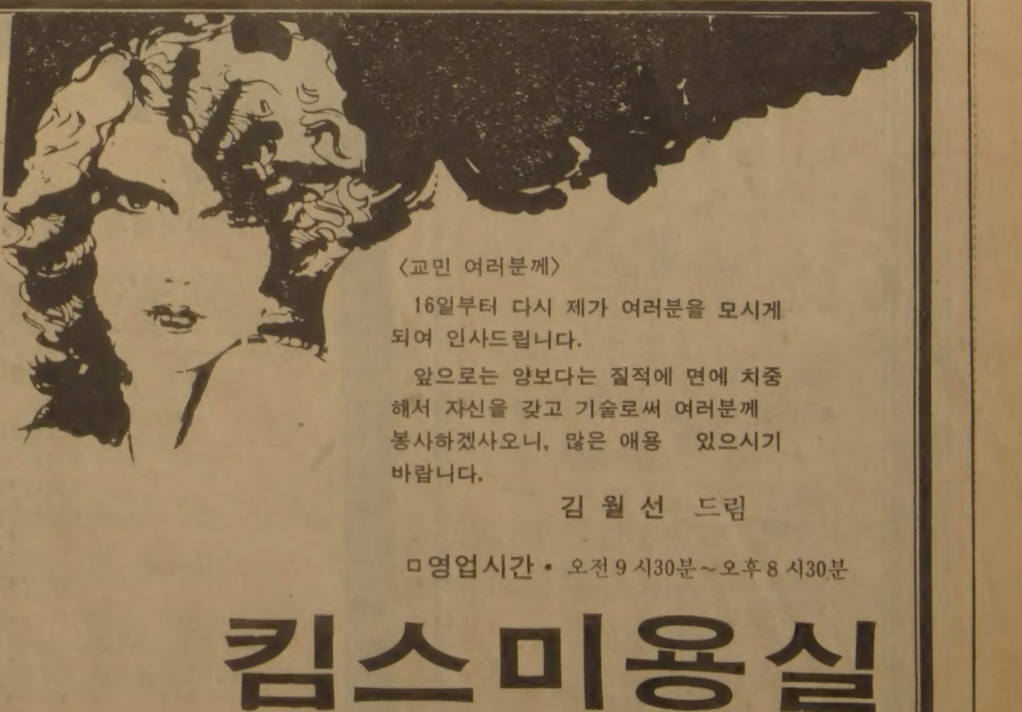
이줄을잡아라
전도간증집회



일본 중앙대학 법과졸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
서울 문리대 정치학 강사
미국 보병학교 졸
미국 참모대학 졸
육본 정훈감실 차감
서독대사관 무관
국가재건최고회 공보실장
15년간 사형수로 옥중생활
"이줄을 잡아라"저서
현 승동교회 집사



■때 : 4월22일(금)~24일(주일)밤 7시30분
■곳 :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nue, Toronto, Ontario M5M 2Z9
문의전화 : (416) 482-4577 (사무실) (416) 665-3132 (사택)



〈교민 여러분께〉

16일부터 다시 제가 여러분을 모시게 되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적에 면에 치중해서 자신을 갖고 기술로써 여러분께 봉사하겠사오니, 많은 애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 월 선 드림

□영업시간 • 오전 9시30분~오후 8시30분

킴스미용실

668 MANNING AVE.(코리아하우스 뒤) ☎532—7094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4企業대표등 9명立件

土開공직원 受賄、內定價알려

"韓一·碧山그룹에 증여세 10億"

大檢、토지 不正재매입사건 全貌발표

4개재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부정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앙수사부(부장 金斗喜대검검사)는 12일 상오9시30분 韓一합섬대표이사 金重源씨(35) 曉星물산 회장 趙錫來씨(47) 碧山그룹회장 金仁得씨(67) 내쇼날프라스틱대표이사 林彩洪씨(54)등 관련기업대표자 4명과 韓一합섬계열의 慶南개발진흥이사 李秉友씨(40) 碧山관리부장 李必師씨(51) 내쇼날프라스틱 부산공장장 李相根씨(43)등 기업간부 3명, 한국토지개발공사 釜山지사장 朴城守씨(53) 차장 李賛濬씨(49)등 모두 9명을 입찰방해및 상법상특별배임, 뇌물공여, 뇌물수수,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관련기사10면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증여세 포탈사실이 밝혀진 韓一합섬과 碧山그룹의 기업주및 그 가족들에 대해 증여세 10억원상당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관련기업이 재매입한 토지는 계약해제 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산값으로 다시 파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동시에 기업주들에게 환불되는 토지대금13억원가량은 「9·27조치」의 정신에 따라 전액 증자조치로 기업자금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韓一합섬은 입찰방해및 회사자금의 유용사실이, 曉星과 碧山은 입찰방해및 토개공직원과의 결탁사실이, 味元은 입찰방해사실이 각각 밝혀졌으며 관련 4개기업이 입찰부정으로 재매입한 토지는 모두 9건에 7만3천8백79평이며 재매입 금액은 18억7천6백94만원에 이른다.

검찰발표에 의하면 韓一합섬의 경우 前회장 金翰壽씨(82년사망)가 지난77년12월31일 장남인 현사장 金重源씨 31일 장인崔漢雄씨(韓一합섬 고문)에게 명의신탁해뒀다가 9·27조치에 의해 82년1월20일 토개공에 7억9천3백50만원에 매각한 釜山東區大昌洞103의1 대지5백14평(2건, 3필지)을 재매입할목적으로 그해3월15일 토개공釜山지사가 실시한 경쟁입찰공매때 회사경리 담당이사 金根祖씨(사망)를 비롯한 직원 金甲敏、李武杰、陳在述씨등이 공모、각기 경쟁입찰자로 가장입찰해 담합끝에 토개공내정가 8억8천8백만원보다 10만원이 많은 8억8천8백10만원으로 낙찰받아 사장 金重源씨의 동생들인 金重建、金重光씨 명의로 재매입케 했다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사장 金重源씨는 토지재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회사돈 4억9천2백만원을 변태지출, 부정입찰을 도한 金根祖씨에게주어 회사공금을 유용한 상법상의 특별배임 혐의를 받고있다.

또 韓一합섬은 사망한 前회장 金翰壽씨가 이번사건 토지및 그인접토지를 장남인 현사장 金重源씨에게 증여한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7억6천여만원을 추징받게됐다.

曉星그룹의 경우、회장 趙錫來씨와 부인宋光子씨 명의로돼있던 경남梁山郡熊上面召周里64의2등 소재임야23필지6만8천4백63평과釜山海雲臺區中洞1503의2 소재 대지 3필지 6백42평을 9·27조치에 따라 82년7월5일 토개공에 2억7천5백88만원에 매각한후 그해11월20일 토개공釜山지사의 공개경쟁입찰 공매때 계열회사인 경남개발진흥 釜山사무소장 李東玉씨와 직원辛晉璋씨 명의로 응찰、예정가격보다 30만원이 많은 3억3백30만원에 낙찰받아 재매입했다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회장 趙씨의 재매입지시에 따라 경남개발진흥이사 李秉友씨등직원들은 82년11월20일 토개공釜山지사 차장 李賛濬씨에게 30만원을건넨것을 비롯, 토개공담당직원들에게 사례금명목으로 1백20만원을 주고 내정가를 미리알아낸뒤 경남개발진흥직원 郭光璨씨등으로하여금 경쟁자를 가장、부정응찰케 하는 방법을 썼다는 것이다.

曉星그룹은 이밖에도 회장 趙錫來씨의 명의로돼있던 서울江南區盤浦洞山20의5 소재대지 77평을 역시 부정경쟁입찰방법으로 82년10월8일 계열회사직원 尹重喆씨 명의로 낙찰받게 했음이 밝혀졌다.

碧山그룹은 회장 金仁得씨와 차남 金熙勇씨 명의로돼있던 釜山海雲臺區中洞940의3등 소재임야20필지 3천1백87평을 9·27조치에 따라 82년6월23일 토개공에 3억5천4백10만원에 매각했다가 그해9월22일 회장金씨의 3남 金熙根씨등 가족 4명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 예정가격보다 1백만원이 많은 3억9천2백만원에 재매입했다는 것. 이때 회장金씨의 지시로 관리부장李必師씨등이 82년9월18일 토개공 釜山지사장 朴城守씨에게 1백만원, 차장 李賛濬씨에게 1백만원등 모두 2백만원을 주고 내정가를 미리알아낸뒤 직원 金雄秀、尹仁渡씨등을 위장경쟁입찰자로 응찰、담합하는 방법으로 재매입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

碧山은 이밖에도 경기龍仁郡器興面古梅里418의6소재임야 4백88평과 서울龍山區清岩洞122의1、2소재 대지 2백87평을 82년6월18일 토개공에 8천6백10만원에 매각했다가 그해10월16일 경쟁입찰때 같은수법으로 9천7백34만원에 金熙勇씨명의로 재매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味元그룹은 회장 林大洪씨 소유이던 釜山西區大新洞2街54등소재대지 2백41평을 82년3월9일 토개공에 1억4천80만원에 매각했다가 그해4월6일 林씨의 동생인 내쇼날프라스틱사장 林彩洪씨명의로 내정가격보다 20만원이 많은 1억5천7백20만원에 재매입했다는것이다.

林彩洪씨는 재매입 과정에서 회사 기획실장 李相根씨에게지시, 林씨의 친척인 金鍾圭씨를 경쟁입찰자로가장응찰케해 입찰을방해한혐의다.

검찰은 현사입건된 9명외에 기업의 말단 직원으로서 범법에 피동적으로 가담, 죄질이 가벼운 사람은 불문에 붙이기로 했으며 토개공직원중 죄질이 가벼운 사람 역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인사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土開公땅 되팔때 前所有관계인 제외

"再買入토지 모두還收"

한달 自進신고、不應땐 制裁

정부는 이번 재벌들의 비업무용토지 재매입사건과 관련, 앞으로 土地開發公社가 매각하는 토지입찰은 제한경쟁입찰제로 바꿔 당초 토지를 소유했던 기업이나 기업주 계열기업주 특수관계인은 입찰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미 전소유자들이나 특수관계인들에게 재매각된 토지는 土開公이 당초 매매가격으로 다시 사들여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팔기로했다.

李寬永건설부차관은 12일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밝히고 이번에문제가된曉星 碧山 味元 韓一合纖등 4개재벌이재매입한 비업무용토지는 원상환원시키기 위해 재매입대금을 아직완납하지 않은것은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업이 자진해서 土開公에 재매각토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李차관은 다른기업들도 9·27조치이후 비업무용 토지를 재매입했을때는 12일부터 오는 5월12일까지 1개월사이에 자진신고토록해서 土開公이 이를재매입하며, 자진신고를 않거나 자진매각에 응하지 않는사람에 대해서는재매입자금의 출처조사와함께 금융제재를 가하고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사직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차관은또비업무토지의처리에대한 행정보완책으로土開公이 사들인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입찰은 종래의 공개경쟁입찰제를 제한경쟁입찰로 바꿔 당초의 소유자기업주 계열기업및 특수관계인은 입찰에 참여하지못하도록 자격을제한하는 土開公관계규정을 개정, 18일부터는 매각 계약체결후에도 결격사유가밝혀지면 계약을 무효로 할수있는 각서를 입찰시에받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投機 一掃策검토

金총리 國政보고

油價조정은 긴 眼目서

金相浹국무총리는 12일『정부는 올해 施政목표를 안보력의강화, 경제活力의증진, 신뢰사회의 조성, 주인意識의 함양으로정하고 깨끗한 정부 정직한정부, 일하는 정부를 지향하면서 外華보다는 內實을추구하는 자세로 國政을펴나가겠다』고 밝히고『정부는 지금 先進祖國의창조를 國政의 기본목표로삼고 자유와번영, 성장과 복지, 평화와 통일을실현하려는 새역사의 길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

金총리는 이날하오 국회본회의에서 國政보고를통해『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하는 불법·비위등을 저지른사례에대해 정부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표하며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정부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올해부터 시행하는 公職者윤리법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金총리는 경제의 당면과제로▲부동산투기▲外債▲通貨관리▲국제原油價 인하부의 국내油價 반영문제를 든뒤 먼저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소지를 막을수있는 근본대책으로▲대도시의 장기적인 주택需給안정▲국토의 균형된 종합개발▲都市圈인구집중의 억제▲관련제도의 補完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通貨관리문제에 관해『가능한 市中의 돈을 금융기관으로 흡수하고 여유자금이 부동산등의 投機에흐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며 현재의 金利체계를 국내물가동향과 자금수급동향에 비추어 이를 지속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자율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총리는 原油價引下에 따른 油價조정에 언급,『우선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더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있는 방안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자유화문제에 대해 金총리는『정부의 기본 입장은 적극적으로 개방화、자유화의 방향으로 나가는데 있다』고 말하고 국내산업에의 충격을 완화할수있도록 수입자유화 豫示制등 적절한보완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밝혔다.

金총리는 외교분야에 대한『오늘날 變化無變한 이른바 無重力、無重心상태의 불확실한 시대에 신축성있게 적응하면서 적극적인 개방외교정책으로 가능한한 많은 국가들과 외교활동을 벌일것』이라고 밝히고 統一문제에 대해서는『北韓의 침략을 저지할수있는 國力을바탕으로 南北韓간의 직접대화를 통한평화적통일을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金총리는 安保대책으로는『정부는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할수있도록 전술·전력을 증강하고 예비전력을 정비강화하며 방위산업의 육성과 장병의 사기앙양등에 힘쓰는 한편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회본회의에서 國政에 관한보고를 하고 있는 金相浹 국무총리。蔡汶植국회의장이 의장석에앉아있다。

◇全대통령이 忠南道를 순시, 올해 道政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大田、田園·教育도시 육성

全대통령、忠南道廳 시찰

공부할 사람 서울서 앞다퉈 오도록

【大田=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12일상오 柳興洙忠南지사로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오는15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쌀10분도가넘는 搗精금지시책이 전국적으로 철저히 실천에 옮겨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계도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금년에도 풍년이 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은 점을 지적,『당초 10일 앞당기기로 했던 올해 모내기를 좀더 앞당기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관계관들에게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국토의 잠식을 막기위해 火葬納骨의 권장과 平墳式집단묘지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忠南道의 墓地제도 개선연구에 큰관심을 보이면서『代代로 내려오는 우리의 풍습을 법이나 제도로 단시일내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좋은 방안으로 계몽하고 지도층이 솔선수범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농어촌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畜産을 진흥하기위해 忠南道가 벌이고있는『고향에 송아지 보내기운동』은 좋은 着想이라고 평가하고 이운동이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全斗煥대통령은 12일『大田市를 서울로 올라오려고하는 사람들을 흡수할수있는도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忠南도청회의실에서 道內 각계인사와 오찬을함께하며 환담하는자리서 이같이 밝히고『이를위해 각종시설을늘리고 교육기관도 이곳으로 유치되도록할생각이며 각종회의도 大田에서열도록 장려하고 있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앞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면 많은 교육기관을 大田으로 유치、大田을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서울에서만 교육시켜야한다는 생각이 없어지도록 할계획』이라고 말하고『大田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田園도시, 교육도시, 관광도시로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라』고柳興洙忠南지사에게 당부했다.

大田도 直轄市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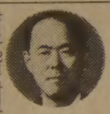
民韓、行政區域 개편방안

民韓黨은 12일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개발을 위해 현행 1특별시 3直轄市 9개道로 되어있는 道단위 행정구역을 1특별시、4직할시、25개道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한지방행정구역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民韓黨정책심의회가 마련한「지방행정구역및 體系改革방안」에 따르면 현행道단위행정구역을 전면재조정、休戰線以南을 1특별시 4직할시(大田추가) 25개道(통일후엔 50개道)의 기본단위로 분할하되 종전과같이「道」로 命名하고 새로운道의 기준면적은 3천7백㎢(忠北道의 절반수준) 기준인구는 1백20만명으로하여 10개郡내외로 편성토록 되어있으며 또1개郡은 半日생활권을 원칙으로 인구10만명을 기준하도록했다.

柳土開公사장辭表

후임 金壽鶴씨내정



정부는 4개재벌의 토지재매입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지고 12일 사의를 표명한 柳根昌土開公사장후임으로 전국세청장 金壽鶴씨(사진)를 내정했다.

◇金壽鶴씨약력▲경북慶州출신·56세▲변호사예시합격▲경북도경찰국장▲전남부지사▲내무부지방국장▲충남·경북知事▲국세청장

韓美안보協개막

오늘 워싱턴서

【워싱턴=申鉉鉉기자】제15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의가 13일상오9시(한국시간13일하오11시)미국 워싱턴 포트·맥네어(국방대학원)에서 열린다.

지난68년 이곳에서 제1차회의(당시는 국방각료회담)가 개최된이래 15년만에 다시 워싱턴에서열리는 이번회의는 13일 오전 金潤鎬합참의장과 존·베시 美합참의장이 공동주재한 군사위원회가 열리고 이어 14~15일에는 尹誠敏국방부장관과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 본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의 군사협력증진을 위한 의견교환과 작년3월 서울에서 열렸던 14차 안보협의회의에서 토의된 사항들이 검토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333·2361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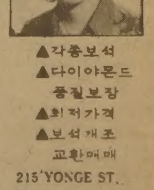
「官」이 이제좀 철이드나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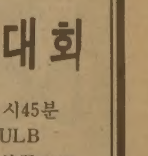
地平線

문공부에서 지정한는 무형문화재와 중요민속자료를 대하면 누구든 잠시 현대생활의 숨가쁨을잊고 저버린지 아득한 옛생각에 젖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랜 전통만이 누릴수있는 생명력의 무게에 놀라게된다. 11일에 발표된 태껸, 유기장、입사장、발탈등도 그 예외는 아니며 흥선대원군의 의복 역시 마찬가지다. ▼태껸은 한말까지만해도 서울장안 청계천을끼고 널리 행해지던 무희였다. 년출년출 品자로 발놀림을 하면서 손과 발길질을하여 상대를 쓰러뜨린다. 이무희는 원래는 무술이었지만 거기에 놀이의 요소가 가미된 형태로서 중국의 권법이나 일본의 가라데와 다른 우리 고유의 것이다. ▼이제는 90세의 송덕기옹과 그의 수제자라할 신한승씨(55세)에게서만 볼수 있을 뿐이니 이번 지정 조치가 없었던들 수벽치기나 석전과 마찬가지로 그 전통이 입멸될뻔 하였다. 이처럼 입멸에 직면하기는 입사장도 마찬가지다. 무쇠나 백통 또는 오동동의 바탕에 금은 동으로 무늬를 상감하는 이학용도 84세의 고령이다. ▼비단 공예적인 기법뿐만 아니라 예능에 있어서도 이동안옹의 발탈로 77세의 발탈에서 마지막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이 또한 하마터면 당대에서 끊어질뻔 하였다. 이들 장인이나 재인의 후예들이 세상의 소외 속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으며 외길을 지켜 장수를 누려주지 않았던들 하는 아슬아슬함을 느끼게된다. ▼또 스테인리스와 플래스틱 그릇들에 밀려서 그렇게도 널리 쓰이던 유기를 만들던 장인 이씨가 마르는가 싶다가 이번에 지정받게 된것도 큰 다행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금속공예가 국가적인 보호까지 필요하기에 이른것은 전통에 대한 우리의 무위와 무책에관한 일침으로 받아들여도 좋을것이다.▼ 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지정조치 자체에 뜻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전통에 대한 이해와 애정의 바탕위에 현대속에서 수요를 확보하고 그 수요를 극대화하는 사회공동의 노력으로 전통을 잇게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한는바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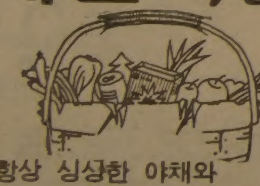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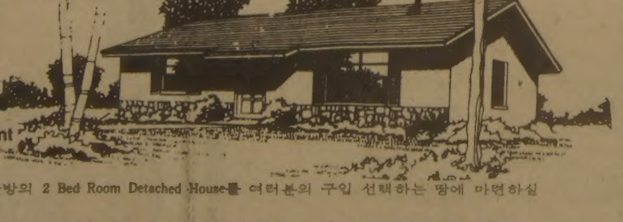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 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SHANGHAI
레스토랑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334 SPADINA AVE.
596-7311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Springwood Homes inc.
당신도 후로리다 휴양지에 별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래 소개된 COTTON-WOOD MODEL HOUSE는 Golf Courses, 학교, 쇼핑센터, 교회, 공원에 인접하고 WALT DISNEY WORLD까지 1시간거리, 그리고 해변에서 10분거리의 멕시코만에 있는 Clear Water 근처의 SPRING HILL COMMUNITY에 건축되고 있는 10가지 Model의 별장중 하나입니다.
The Cottonwood
*$21,000 (U.S. funds)
Terms min. 20% down payment

이와 같은 중앙식 냉난방의 2 Bed Room Detached House를 여러분의 구입 선택하는 땅에 마련하실 수 있읍니다.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2페이지의 소개 팜플릿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읍니다.
현지답사와 년중 사용치 않는 동안의 Rental Service를 알선해 드리겠읍니다.
SANG ROCK INC. 일동 이영웅, P. ENG., 장복성, P. ENG., 조규열, 김동천, 권용철, 안영운
TEL: 661-3124

연합친선골프대회
⊙날 자: 1983년 5월14일(토) 11시45분
⊙장 소: KLEINBERG GOLF CULB
(HWY 7에서 HWY 27북쪽으로 5마일 지점. NASHVILLE RD에서 에서 좌회전 0.6마일)
(PRO SHOP 893-1020)
⊙회 비: $35(GREEN FEE & STEAK DINNER)
⊙시 상: Gross Champion-Annual Troqhy
Gross 1, 2, 3,등 Trophy
Net(A조) 1, 2, 3등 Trophy
Net(B조) 1, 2, 3등 Trophy
Net(C조) 1, 2, 3등 Trophy
Lady
Longest Drive Most Honest
Nearest to Hole 기타 상품 다수
▲신 청: 당일현장
▲연락처: 조춘상(742-0260)
(B)743-7722
토론토한인연합교회
골프클럽

군사력 增強등 둘러싸고
日·蘇 외교攻防 치열
外務次官회담서 舌戰 1시간

【東京=聯】일본을 방문중인 소련부외상 미하일·카피차와 마쓰나가·노부오일본외무차관은 11일 아시아에배치된 蘇SS20중거리核미사일과 기타 쌍무현안을 놓고 뜨거운 舌戰을 벌였다고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전했다.

외무성대변인은 카피차부외상의 예방형식으로 이뤄진 1시간동안의 양국외무차관회담에서 마쓰나가차관은 유럽배치SS20미사일이 이미 아시아에 배치돼있는 기존미사일과 합류할수도 있다는 안드레이·그로미코蘇외상의 최근 발언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북방4개도서의 반환을 거듭 요구했다고 말했다.

50년대 이래 最惡의 관계

마쓰나가차관은 또 소련의 캄보디아침공 베트남에 대한 지원, 아프가니스탄 침공 폴란드내정간섭, 蘇아시아군사력증강등이 日·蘇간의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日·蘇양국은 12일 도오쿄(東京)에서 제3차 실무급회담을 이틀간 예정으로 개막하는데 지난 1956년 외교관계 재개이후 지금이 가장 관계가 악화돼 있는것으로 외무성소식통들은 보고있다.

"日 해상방위 1천해리에 局限"
나까소네, 아세안國기자들 회견

【東京=聯】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은 11일 일본이 자국연안에서 1천해리를 넘는 해상교통로에대한 방위를 공약하지는 않겠다고말했다.

나까소네수상은 또 일본이 아시아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배할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재정상태가 어려우므로 점진적인 방위정책에 호소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北韓군사要員 參加
니카라과左翼 지원

【워싱턴=聯】북한군사전문가들이 현재 소련및 쿠바군사요원들과 함께 니카라과내전에서 좌익 산디니스타정권을 돕고있다고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지가 18일자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外信 안테나

이 잡지는 美정보계의 최신평가서를 인용, 현재 니카라과에는 3천명의 군사고문관을 포함한 8천명의 쿠바군과 소련, 동독, 불가리아등 동구권군사요원들외에도 북한의 군사전문가들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共, 對越항의서한
國境침범 警告표시

【北京=聯】중공이 10일 베트남에 보낸 中·越국경침범항의서한은 현재 타이접경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베트남군의 건기대공세에대한 경고적 성격을 띠고있다고 北京주재 한서방외교관이 11일 밝혔다.

레바논국영방송 27차회담때맞춰
"撤軍문제 重大협상進展 가능성"

【베이루트SPA=聯】레바논·미국및 이스라엘 협상대표단이 11일 레바논주둔 이스라엘군 철수협상에 관한제27차회담을 네타니아에서 개최했다. 이와때를 같이하여 국영 베이루트 방송은 『중대한 협상진전』의 가능성이 현재 일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 방송은 이번 회담의 국지적이며 지역적인 협상진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는데이것은 레바논 이스라엘협정체결이예상된다는것을의미한다.

中共, 종래의 開放경제정책 固守
鄧, 對美민간 상업관계유지 示唆

【北京UPI=聯】중공실권자鄧小平은 11일 美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종전의 개방경제정책을 계속 밀고나갈것이라고 확언함으로써 최근의 후나(胡娜)양 망명사건과 관련한 문화관계단절조치에도 불구하고 美·中共양국간의 민간상업관계가 타격을 받지않기를 바라고있음을 시사했다.

중공관영 新華社통신은 鄧이 美플루어社 민간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외경제관계의 개방정책을 궤도수정하지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中共청년 亡命요청
外船타고 美로탈출

【샌프란시스코(美캘리포니아州)UPI=聯】멕시코화물선에 숨어 타고 미국으로 밀입국한 한 중공청년이 9일 샌프란시스코灣 어귀의 금문교부근 바닷물에 뛰어든뒤 구조되자 미국에 정치적망명을 요청했다고 美해안경비대가 밝혔다.

◇전략頭腦들과 미사일배치 논의하는 레이건

레이건 美대통령이 11일 白堊館의각료회의실에서 MX미사일 배치방법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인 제임즈·슐레신저 (左端) 와 알렉산더·헤이그 前국무장관 브랜트·스코크로프트 前국가안보보좌관 (右端) 등과 숙의하고 있는모습. 【워싱턴11日AP電送=聯合】

동남부戰線서 大血戰
이란·이라크 쌍방간에 막심한피해

【바그다드·베이루트·니코시아AP·UPI=聯】이란군은 수주일에 걸친 페르시아灣전쟁의 소강상태를 깨고 10일밤 이라크동남부 미산지역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공세를 감행, 11일하오까지 30㎞전선에쌍방이 막심한 인명피해를내면서 이라크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있는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란 관영 IRNA통신은 10일밤 11시 (현지시간) 동남부접경지역에서 개시된 전투에서 이란군은 이라크군4천5백명을 사살또는 부상시켰으며 31개월째 계속되고있는 페르시아灣 전쟁초기에 빼앗긴 접경지역의 60㎢를 회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라크관영 INA통신과 바그다드 방송은 이라크군사 코뮈니케를 인용, 이라크군이 심야전투에서 공격해 들어온 이란군 3천2백20명을 사살했으며 이밖에도 수많은 이란군인들을 부상시키고 포로로 잡는 한편 이란군의 월경공격을 『완전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관영 테헤란 방송도 이란군사코뮈니케를 통해 양측간의 전투가 11일하오에도 계속중이라고 밝히고 『이란의 권리가 회복되고 이라크에 회교체제가 들어설때까지 전투는 계속될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란관영 IRNA통신은 또 이번 전투에서 이라크군사장비의 상당량이 크게 파괴됐다고 말했다.

武器수출 再考
西獨, 西方이익危害에 대비

【본AP=聯】헬무트·콜수상의 서독정부는 서방의 이익이 위태로와질 경우에 대비하여 무기수출정책의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계소식통들이 11일 말했다.

믿을만한 소식통은 서독정부가 서방의 이익상 필요할 경우 의회의 승인없이 조치를 취할수있길 바라고있다고 밝히고 종전의 제한정책에서 이탈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독의 무기수출정책은 서독의 주요이익이 위협받는 경우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이익에 관계되는 경우 긴장지역에도 무기를 팔수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한 82년4월 국가안보회의(NSC)의 결정에 따라 실시돼왔다.

韓·美外相회담
29일 美서열려

李範錫외무장관이 슐츠美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오는27일부터 5월7일까지 미국을 공식방문한다고 외무부가 12일 발표했다.

李장관은 訪美중 슐츠장관과 韓美외상회담을 갖는외에 美행정부의 고위인사및 의회지도자들과도 접촉, 상호관심사와 세계정세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것으로 알려졌다.

民正, 黨規개정확정
企劃調整局등 新設

民正黨은 12일상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중앙당의 기구를 일부 개편하는 내용의 黨規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黨規는 중앙당사무처의 조사국과 총무국기획부를 합쳐 企劃調整局을 신설하고 조직국의 기능부 노동부와 청년국을 통폐합하여 職能局을 새로 만들고 정책국은 폐지했다.

개정黨規는 또 國策연구소에 黨理念연구단과 정책연구실및 정세분석실을 두었으며 중앙위의 분과위를 10개에서 23개로 늘렸다.

中執委는 이날 개정黨規의 字句 修正과 체계상의 문제등을 검토하도록 다음과같이 小委를 구성했다.

▲제1小委(사무처관련규정)=李台燮·沈明輔·梁昶植·南載熙·金賢子 ▲제2小委(特委관계규정)=金淑鉉·金容大·鄭宗澤·羅碩昊·宋志英 ▲제3小委(기타규정)=張聖萬·李漢東·李相翊·朴翊柱·吳漢九

人事異動

내무부

▲서울시경교통과장 李淳日 ▲치안본부교통지도담당 崔南秀 ▲〃수사대장 鄭海秀 ▲大邱시경경비과장 (직대) 金載元 ▲전북도경정보〃 金德淵 ▲〃보안 (직대) 權圭一 (13日字)

民韓黨

▲통일特委부위원장 金正佑 ▲災害대책〃 朴東仁 ▲조직부국장 奇正哲 ▲婦女〃 張明淑 ▲부녀국제1부장 任甲壽 ▲黨報편집부국장 金三雄 (12日字)

韓電

▲富平지점장 鄭炳九 ▲忠州〃 崔時榮 ▲公州〃 [illegible] ▲堤川〃 [illegible] ▲扶餘〃 [illegible] ▲榮州〃 [illegible] (12日字)

전기통신공사

▲신전화국장 金聖律 (13日字)

內外動靜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12일상오 중앙당사에서 李海龜신임 치안본부장의 예방을받았다.

本社來訪

▲尹山鶴씨 (한국편집기자회사무국장) ▲韓義洙씨 (韓國反共聯盟海外研修部長) 인사차 ▲柳泰容씨 (해외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신임인사차

◇「조개속에서 나온아이」—復活節에 쓸 초컬리트로 만든 조개모양의 대형과자。生後12개월된 어린이가 마치 이속에서 태어난듯 재롱을 부리고있다. 【키스톤=聯合】

海外토픽

"나폴레옹이 진빚 받아내겠다"
★스위스住民 미테랑 방문맞아

스위스의 생피에르 마을지도자들은 금주내로 예정된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의 스위스방문을 맞아 나폴레옹이 1백83년전 이마을에 진빚을 모두받아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마을의 페르낭·도르자시장은 나폴레옹이 1800년5월 이탈리아 원정길에 이마을에들러 주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노새들을사용한데대한 피해를 모두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한서류에 서명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나폴레옹이 생피에르 마을에 진 빚에 지금까지의 이자를가산하면 1억5천만프랑 (약5백80억원)이지만 미테랑 정부가 3만프랑 (약3천1백50만원)만 낸다면 이문제를 완전매듭지은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 【UPI】

中共에 電氣고양이
★쥐소탕위해 개발

중공에서는 지난해 총곡물수출량에 해당하는 약1천5백톤의 곡물을 축내고있는 30억~40억마리의 쥐를 소탕하기위해 최근 『전기고양이』를 개발했다.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쥐들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 『전기고양이』로부터 뻗쳐진 전선을건드리는쥐는고압전류에 감전, 즉사한다는것. 【AP】

社說

토지公槪念 첫適用
—서울新市街 개발방식의 關心點

서울市당국은 11일 『良質의 주택을 대량으로 값싸게 공급하고 불량지역을 정비, 토지 이용도를 높이며, 국제수준의 쾌적한 신시가지를 건설코자 앞으로 3년안에 江西區木洞·新亭洞일대 安養川 西쪽지역 1백40만여평을 土地公營개발방식에 따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주택행정 效率化를 위해 腐心해온 市당국이 이처럼 일부지역에서나마 땅의 私有개념보다 公槪念을 앞세워, 新市街地를 개발하려 한다는 것은 획기적 의의를 지닌것이라 하겠다.

도시내의 택지개발이 공공기관의 사전 토지매입내지 수용에 의한 종합개발 형태로 추진될 경우, 당국은 충분한 便益시설확보등 일관성있는 개발계획을 할수 있게된다. 동시에 부동산투기꾼들의 농간을 배제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좀 더 부추겨 줄수 있을것이다.

食糧의 自給노력과 工場增設등에 따라 土地는 수요가 漸增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供給量은 늘릴수 없는것이 우리 現實이다. 그러므로 土地나 住宅은 이를 돈과 富의 상징으로는 물론, 投機의 對象物로 삼아 안될것이 그 當爲이다. 그렇고보면 이번 서울市에서 부동산투기배제에 一助가될 公營개발 형태를 도입, 3만가구분의 대규모아파트단지를 마련하고 그중30%이상을 永久賃貸주택용으로 돌리려는계획은 원칙적으로 찬의를 표하고싶다.

하나 그같은 뉴타운건설에는 깊이 배려돼야할 문제점 또한 적지는 않아 보인다. 우선 사업비 조달과 地價보상에 억울함이 없게 할일부터 그렇다.

둘째, 公槪念의 활용이 大都市에서 불가피한 추세이기는 해도 그에따른 限界같은것은 명시돼야 할 점이다. 지금으로선 國土全域에 걸친 公槪念적용은 생각하기 힘든다. 그러므로 公營방법의 과잉확대나 빈도화는 자칫 私有財産 존중의 원칙을 불공평하게 손상시키는 사례를 빚기도 쉽다.

셋째, 분양방식에서 고려해야할 문제점은 더욱 허다해보인다. 價格부터 적절하게 매겨야한다. 또 무허가 건물주라해도 보상금뿐아니라 市營아파트입주권을 주는방안도 생각해봄직하고 유허가건물은 보상철거하되 새주택분양에서 연고권·우선권이 존중돼야 할것이다.

네째, 개발된 新市街地가 행여나 人口集中의 誘因으로 작용않도록 엄계해야한다. 이를위해 서울居住경력 같은것을 분양및 입대의 한 요건으로 삼음이 한방도일것이다.

다섯째, 그어떠한 방식을 취한다해도 垈地는 서울市가 영구소유하고 建物만 분양해주는 방법을 택할것을 권고한다. 체비지를 空地그대로 팔아 넘기지도 말아야하며 그곳 새家屋의 賣渡는 상당기간(3년~5년)거주한후라야 팔수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는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결의 要訣이다.

오늘날 歐美선진국에서는 주택에관한限, 所有의 槪念아닌 住居의 槪念이 보편화하고있다. 그리하여 富者들도 평균50%가량은 제집아닌 전세집에서 살고있다.

우리들에게서도 所有의 槪念보다 住居의 槪念에 더 매력을 느끼게하려면 관계당국이 주택의施工과정감독과 준공검사를 보다철저히하여 不實주택을 못짓도록해야한다.

보태서 당국은 無住宅서민들의 財力을 감안, 分讓價와 賃貸料를 될수록 싸게해야 할것이다. 현재 自由經濟체제를 택하고있는 西歐여러나라도 土地와 住宅의 가격이나 그 賃貸料만은 소유주들이 멋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公權力으로 규제하고있다. 이런 趨勢에 발맞추어 모처럼 서울市서 단안을내린 토지공영개발방식과 永久賃貸주택제가 큰 성과있기를 바라면서 그 시행을 지켜보련다.

財閥과 땅과 농간
—再買入사건搜査서 드러난 病弊

大檢察廳 中央수사부는 어제 4개재벌의 非業務用土地 再買入과정에서 저질러진 非違혐의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네그룹이 다시 사들인 土地林野는 모두 9件이고 가격은 18억7천6백여만원이며 그 그룹 총수의 지시에 따라 土地開發公社의 경매에 응찰하여 사들인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9·27조치는 大企業들이 巨額의 은행부채를 안고있으면서 기업운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土地를 保有하고있는 사실이 企業財務구조악화·不動産투기등 경제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기때문에 이를 처분하게한 시책이었다.

네企業들은 이조치에 따라 土地公社에 일단 팔았던 땅을 다시 사들임으로써 物議를 빚었고 入札과정에서 內定價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落札함으로써 賣渡기관인 土地公社측과 결탁및 入札방해등의 혐의를 받아왔던 것이다.

수사결과 역시 네기업의 대표는 商法上특별배임및 입찰방해혐의로, 간부 3명은 入札방해·뇌물공여혐의로, 土地公社직원 2명은 뇌물수수·비밀누설혐의로 각각 不拘束 刑事立件되었다.

사후처리로서는 문제의 땅 9件을 契約파기 또는 再買入방법으로 土地開發公社에 還元하기로 하였고 그중 두 재벌에 대하여는 土地再買入과정에서 10억원상당의 자금흐름이 있은 사실을 포착, 증여세를 추징케 했다고한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재벌외에도 類似한 非業務用土地再買入사례가 있을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事件化하지 않기로한듯 하다. 그대신 主務당국인 전경부가 이에 대한 善後策으로서 一定한 自首기간을 설정, 再買入사실을 自進申告케 하였다.

이는 기업의 非違를 事後矯正토록하고 대신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위한 특별한 配慮라고 할것이다. 문제의 네재벌 총수를 비롯한 모든 혐의자들을 不拘束立件한것도 같은 配慮에서라고 한다. 따라서 이 기회에 관련기업총수와 간부들은 새삼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책임이 무거운 사실을 투철히 인식하고 자세를 正道대로 바로잡아 자신들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일이 없어야 할것이다.

큰나무와 가지많은 나무가 바람을 더 드세게 탄다는것과 한가지로 큰 기업을 경영하는 人士들에 대한 국민의 눈초리는 날카로운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그들에게 한 기대가 큼과 동시에 大企業의 기여를 전제로한 財政的및 行政的특혜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번 事件은 비업무용不動産의 賣買를 담당한 土地開發公社책임자의 辭任을 몰고올만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이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기를 기약하여야 하겠다. 무엇보다 9·27조치의 대상이던 큰 企業들이 스스로 自制하여 不必要한 不動産투자를 하지 말 일이며 이조치를 관리·감독하는 당국과 銀行이 기업관계자들의 그런탈선을 事前에 막아야 한다.

앞으로 土開公側은 土地賣却時 제한入札方法으로 9·27해당기업 관계자들의 참가를 배제하기로 할것 이라고 한다. 그같은 제한入札이 실효를 거두자면 기업관계자들의 自進不參加풍토가 조성되어야 할것이다. 사돈의 八寸명의로 기업관계자들이 入札에 끼어들때엔 감독기관이나 土開公으로서 전혀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보기때문이다.

政局往來

與野맞서…"국민警覺心 일깨워주었다"에 "현실 보는눈 너무樂觀的"

◆기름값내릴때절약해야할때없어

全斗煥 대통령은 12일낮 忠南道政보고를 들은뒤 도청회의실에서 道內각계인사 1백2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국민의 위대성, 에너지및에너지절약의 필요성, 전국민의 관광요원화등을 거듭강조.

全대통령은 에너지절약을 강조하면서 『나 한사람이 절약해봐야 도움이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기름값이 내릴수록 더 절약해야하며 3~5년뒤에는 다시 오를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절약해 기름값이 오르더라도 낭패를 당하지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당부.

全대통령은 또 『교통 거리질서수준은 아직 흡족하지는 못하나 과거에 비해 많이좋아지고 있다』면서 『질서를 알면서도 안지키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반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온것은 과거 외국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을때 우리국민이 힘없는 국민으로 스스로 인식되도록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 『그러나 우리같은 受難의 역사속에서 살아남은 민족은 世界史에서 많지않다』며 우리국민의 위대성을 역설. 【大田=尹國炳기자】

◆與野…國政보고에 엇갈린論評

12일하오 續開된 국회 본회의는 金相浹국무총리로부터 國政보고를 듣고 45분만에 散會.

이날 金총리는 둔중하나 약간 빠른목소리로 35분간 國政보고를 읽어내려갔는데 보고가 끝난뒤 與野의원들은 내용에대해 肯定과 批判의 엇갈린 反應.

民正黨의 朴權欽의원은 『安逸을 허용하지 않는 內外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언급, 국민의 警覺心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했고 李致浩의원은 『상당히 개방적인 통일정책의 지표명이 눈에 띄었다』고 평가.

반면 民韓黨의 孫世一의원은 『難局의 실체에 대한 현실의식이 심각할 정도로 낙관적인것 같다』, 金炯來의원은 『지엽적 현상만을 나열했다』고 酷評. 林德圭의원은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총리가 아닌 행정총리란 느낌을 받았다』고 각각 한마디씩.

◆좋은 의견 기탄없이 많이 내달라

黨職改編후 처음열린 12일 民正黨의 中執委에서 陳懿鍾대표위원은 『지난 2년간 이룩한 업적을 바탕으로 좋은정책을 개발, 우리의 進路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앞으로 기탄없이 좋은의견을 많이 내어달라』고 注文.

이날 羅碩昊위원이 『그동안 紙上에 民正黨의 정책이라고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것은 黨論각기도 하고 어떤것은 그렇지 않은것도 있었던것같은데 玉石을가려달라』고하자 鄭石謨정책위의장은 『앞으로는月間정책활동보고를 하겠다』고답변.

이어 張聖萬釜山市支部長이 『市道지부간담회를 定例化하겠다고했는데 어떻게할계획인가』고 질문하자 陳대표는 『매달 열리는 中執委의중간에 열겠다』고 밝히기도.

◆우리당內紅겪는듯 誤傳되고있어

12일의 民韓黨당무회의는 지난8일 문교·내무 두 장관에대한 引責사퇴요구결의가 당무회의의 결론을 번복한듯한 인상을준 사실을 숙점논의.

柳致松총재는 이와 관련, 『이번 국회는 어느때보다 難題가 많은데 마치 우리黨이 內訌이라도 겪는듯 誤傳되고 있다』면서 『자칫 院內전략에 차질을 가져올수 있으니 더한층 단결하자』고 당부.

柳총재는 또 『引責문제는 「時限性의 차이」뿐인데 마치 議總이 번복한듯 誤傳됐다』면서 『議總의 자유토론은 민주정당의 기본이나 그렇다고 黨內불만의 噴出口인양 오해되고 있는것을 모두 냉정히 생각해보자』고 自省論을 제기.

이날 孫世一·朴炳[illegible]의원등은 『지난번의 국회法司·내무위 소속의원 연석회의 결과를 미리 공표한데 잘못이 있었던것 아니냐』고 총무단을 비판.

◆국민, 대표연설자選定에갈팡질팡

李萬燮부총재의 「[illegible]」 국회의장출마를 놓고 交替여부 黨論으로 右往左往했던 국민당은 12일 국회대표연설자로 당초 李부총재를 선정했다가 李鍾贊부총재로 갑자기 바꾸는등 또한번 갈팡질팡.

金鍾哲총재는 11일저녁 弘濟洞자택에서 李萬燮부총재와 만나 『民正·民韓黨이 陳懿鍾대표위원과 柳致松총재를 각각 대표연설자로 내세웠으니 格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李부총재가 대표연설을 하는게 좋겠다』고 통고했고 金完泰대변인도 이를 공식발표했었으나 2시간도 채못돼 갑자기 李鍾贊부총재로 交替되었다고 발표.

金대변인은 번복경위에 대해 『金총재가 李東鎭총무등 총무단의 건의를 받고 마음을 바꾼것으로 안다』고 말했을뿐 그이상의 배경설명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黨內 일각에서는 『李부총재의 의장競選과 관련이 있는게 아니냐』고 풀이하기도.

한편 李萬燮부총재는 12일 『金총재로 부터 「갑작스런 交替」를 양해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양보할뜻을 밝혔다.

CASH & CARRY
DOMINION SMALL WARES

APRIL 9 - APRIL 23, 1983		SPECIAL
Mr. Freeze 36ml	400x.5¢	$11.05
Mr. Freeze 75ml	200x10	12.15
M & M Candy 198g 24 count		30.60
Leaf Ball Gum	48x10	3.33 (buy 10 get 1 FREE)
Wrigley's Gum	20x30	3.95
Smiles & Chuckles Fruit Jellies	300g	1.79
Smiles & Chuckles Turtles 400g		4.75
Smiles & Chuckles Turtles 200g		2.55
Ring Pops (50¢ BONUS PACK)	36x25	5.90
Fun Dip (30¢ BONUS PACK)	48x15	4.70
Dinasour Eggs	36x15	3.50
Big Foot	96+4x.5	3.15
Hot Lips	96+4x.5	3.15
Y & S Twizzlers Red & Black	36x10	2.69
Neilson Chunks Chocolate Bar	36x40	8.55
Neilson Rosebud Family	24x99	14.69

47 Orfus Rd. (도매상 Loeb 근처) 789-7214 매니저 김 근 래

주제 ·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 : 2)

'83
세계복음운동 토론토 집회

□강사 김선운목사
•서울대학교 졸업
•미 Westminister 신학교 졸업
•미 템플대학원 철학박사 취득 동대학 교수 역임
•현 북부 필라한인교회 담임
•세계 복음 운동회장

□주최 세계복음운동토론토지회 (270-3092, 626-5382)

□시일 1983년4월21일-24일
목.금.토.일-저녁7시30분
4월23일(토)오전 11시
청소년영어성경강좌
THE CHRISTIAN FACE & PERSONAL IDENTITY

□장소 벧엘교회 (395 Old Yonge St.)

「不拘束」에 네企業 안도

—土地재매입부정 大檢 수사발표 하던날

"經濟파문 고려"… 反應에 신경써

4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재매입 부정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검찰은 1주일에걸친 피로도잊은채 「시민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웠고 기업들은 구속자가 한명도 없다는 발표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정상분위기를 되찾았다. 또 부산지사장등 간부2명이 입건되고 柳根昌사장이경질되는등 파동을빚은 토지개발공사는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土開公직원 不拘束은 "형평 참작한것"

檢察 검찰은 지난4일 국무총리의지시로 직접수사에 나선후 수사진행상황을 철저히 보안했는데 관계자들은사건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는 물론 수사결과발표예정에 대해서 조차 시종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같은 검찰의 신중한 태도는 12일상오의 최종발표순간까지 계속됐는데 당초발표예정시간인 상오9시30분까지도 金斗喜중수부장등 수사간부들은 총장실에서 발표문을 검토하고 자구를 수정해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일반의 반응에 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9페이지로된 발표문안중 韓一합섬, 瑞山에대한 세금추징조치및 관련자를 불구속입건한 이유를 밝힌 대목에서는 당초인쇄된 페이지를잘라내고 새로운 문안을 풀로 붙여 넣기도했다.

또 이날 발표에는 사진촬영이 일체허용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주요사건 수사발표때면 신문을 비롯, TV등 사진기자들을 모두 참석시킨가운데 진행됐던 전례와는좋은 대조를 보였다.

검찰의 이번사건보안은 유례없는 것이었는데 검찰수뇌부는 지난5일 수사착수와함께 검사등 수사관계자들에게 일체 함구령을 내리는 한편 대언론창구를 金斗喜중수부장으로 일원화하고 『수사내용을 발설할때는 엄중문책하겠다』는 특별지시까지 내렸다.

이날 발표에서 검찰은 사건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정도에 대한 반응을 유난히 의식한듯 『기업주뇌부의구속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마비를 막고 경제계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여러차례 강조, 그러나 토개공직원들도 불구속한 이유를묻는 질문에는 『정상을 참작했다』라고만 막연히 설명했는데 검찰관계자들에 의하면 『기업관계자들을불구속하면서 토개공직원들만을 구속할수는 없다』는 형평관계가고려된 결과라는 후문이다.

"예상보다 가벼워 홀가분" 업무 열중

企業 ◇韓一合纖=서울中區西小門洞동화빌딩에 있는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이번사건으로 金重源사장 한사람만형사입건으로 끝난것이 다행이라는 표정들. 서울사무소 임직원들은 『지난달 17일부터 韓一合纖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뒤로 일손이 제대로 안잡히고 수사에만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됐으니 홀가분히 일에 열중하게 됐다』면서 특히金根相이사와 함께 釜山까지내려가 조사를 받았던 李武杰원가계산과장이 풀려나오게 된것이 더욱 다행이라고 말했다.

◇瑞山그룹=이날 상오부터 간부회의를 소집하는등부산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궁금해하던 진상이밝혀져 후련하다는 표정이었다.

직원들은 보도를 통해 토지재매입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李必師관리부장만 불구속입건되고 다른 직원은 처벌에서 벗어난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직원도 매입직급 5억원에대한세추징및입건된 金仁得회장과 李必師관리부장의 사후처리가 어떻게될지 궁금해 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차례 인사바람이 불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曉星그룹=토지재매입을 맡았던 京南개발사무실은 정상을 되찾고 밀린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속 걸려오는 안부전화에 답변하는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李東友이사와 직원3명도상오8시30분께출근, 직원들의 격려를받은뒤 정상업무를 보았다.

◇味元=사건에 직접 관련된 내셔날 프라스틱은 검찰발표가 나오자 마자 구내방송을통해 전종업원들에게 조치내용을 알리며 그동안 들떠있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업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

한편 新設洞의 味元본사는 내셔날 프라스틱측과 전화연락을 취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고 아침일찍부터 간부회의를 열어 사후대책을 논의했다.

社長의 사표에 對策會議 분위기 침통

土開公 釜山지사장과차장2명만이 불구속입건됐다는 검찰발표가있자 토개공본사(서울龍山區漢江路3가 삼익빌딩)와 釜山지사(釜山市 大昌洞3가88)의 임직원들은 예상보다 입건범위가좁고 불구속으로 끝난데대해 안도의한숨을쉬는 표정이었다.

釜山지사의 임직원 30여명은 출근한뒤에도 일손을 잡지않고 가슴을 죽이며 검찰 수사발표를 확인하느라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서울본사는 전국간부들이 이날상오10시부터 11층 柳根昌사장실에 모여 긴급회의를 갖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앞으로의 대책등을논의했는데 柳사장이 이번사건의 도의적책임을 지고 물러나게돼 이날 회의분위기는 『매우 침통했다』고 한간부는 전했다.

北傀도발대비 논의 空軍지휘관 會議

空軍은 12일상오 金相台참모총장 주재로 공군주요지휘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련의 극동군사력증강, 최근 北傀의 준전시태세선포등으로 인한 도발가능성에 대한 최근동향을 예의분석하고 이에대한 다각적인 대공대비책을논의했다.

五洋51號 피납 석방교섭 지시

외무부는 12일 五洋51號의 나포문제와 관련, 韓宇錫駐인도네시아대사에게 진상을 조사하고 선원들의 석방교섭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屋內外 집회말라 서울大, 警告文

서울大는 12일 일체의 옥내외학생집회를 금지할것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각단과대학게시판에 공고했다.

12일하오1시를 기해 각단과대학장명의로 게시된 이경고문은 「수업분위기를해치는 일체의 옥내외학생집회를 오늘부터 중지할것」을 촉구하고 「이같은 지시를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하거나 참가하는 학생 또는 고성방가하는 학생들은 응분의 문책이 불가피할것을 엄중히경고한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이날상오 임시학장회의를 소집, 이같이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관계자는 「시험1주일전에는 모든 학내의행사를 가질수없게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갖는 경우가 있어 취해진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大의 중간고사는 오는18일부터 시작된다.

추천成績 첫반영 17회 外務高試 3차시험

총무처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제17회 外務高試3차시험에 학교추천평가성적을 반영, 2차필기시험성적과합쳐 득점순서에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키로 했다.

교수추천성적이 국가시험에 반영되는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다.

12일 총무처에 의하면 이번고시에 교수추천성적이 반영되는 응시자는 2차합격자 26명중 13명이며 나머지13명은 추천성적을 받은 수험생의 점수비율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받게된다.

慶州청소계장 轢死

【慶州】11일하오 7시40분께 경북慶州市西岳洞 慶州국민학교 앞길에서 大邱에서 慶州로오던 부산7아5952호 8톤트럭(운전사 李종환·28·경북 月城郡 西面阿火里377)이 경북 1마7008호 250cc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慶州시청 청소계장 鄭一河씨(49·慶州市西岳洞)를 치어 숨지게했다.【聯】

◇소풍가는 어린이들 4월들어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자 국민학교어린이들의 봄소풍이 시작됐다. 육교를 건너고 빌딩사이를 빠져 景福宮으로 향하는 국교어린이들의 모습이 한없이 귀엽지만 소풍갈곳마저 빼앗긴 도시어린이들의 처지가 안타깝다. 【12일상오 安國洞에서 朴泰弘기자찍음】

機關員사칭 38억詐取

鎭海, 자금동원 下手人등 3명拘束

【鎭海】경남 鎭海경찰서는 12일 모기관조달부장을 사칭, 38억여원을 사취한 조기오씨(43·서울江東區蠶室洞246의14)와 자금동원책 이문기씨(39·여·釜山市東萊區長箭3洞628의66)등 2명을 상습사기혐의로, 李여인의 내연의 남편인 신현석씨(55·서울江南區瑞草洞11)를 사기방조혐의로 구속하고 최동오씨(32·주거부정)를 상습사기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따르면 사기및 절도전과 2범인 주범 조씨는 지난해11월 최씨를통해 알게된 이씨를 동원, 「지난3월중순까지 건설회사에 투자해 놓은 이자를 받아주겠다」며 강모씨(52·鎭海市餘佐洞)등 鎭海시내거주자 16명으로부터 3백70여차례에 걸쳐 38억8천2백10만원을 사취했다는것.【聯】

도룡뇽알 먹으려 五臺山등에 人波

요즘 嶺東지방에는 도룡뇽과 알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계곡마다 크게붐비고있다.

平昌郡珍富面 국립공원오대산계곡을 비롯한 설악산과 대관령등지에는 요즘 서울등 대도시에서 하루평균 적으면 3~4백명에서 많으면 1천명이 몰려와 계곡마다 정력이좋다는 도룡뇽과 알을찾아나서고있다.

도룡뇽은 흐르는 물과땅이 맞닿는 곳에 알을낳아 흙으로 살짝 덮어놓기때문이다.

또 도룡뇽은 잡는즉시 입으로 씹지않고 삼켜버리는데크기가 어른 중지손가락만해 어렵지않게 넘길수있다.

서울에서 동료4명과 2박3일예정으로 도룡뇽과 알을 먹으러왔다는 張昌榮씨(49·서울冠岳區新林洞)는 『허리가아파 일어설수가 없었는데 도룡뇽과 알을 먹은후 거의나았다』며 『효과가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江陵시林塘洞95 동양한의원 崔鍾百원장(49)은 도룡뇽과 알을 먹으면 신경통, 정력촉진, 이뇨작용에 도움을주어 적당히 먹는 것은 좋으나 사람들이 너무 극성을 부리는 것같다』고 말했다.【聯】

5行뉴스

◆20代쇠창살에 목매자살 【太白】12일새벽1시께 강원도太白市黃池1洞11통2반 D음식점 5호실에서 지난3월2일까지 이집 종업원으로 있던 천서봉씨(23·주거부정)가 창문쇠창살에 목을매 숨져있는것을 종업원 신인수씨(22)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聯】

◆트럭 미끄러져 老人숨져 【釜山】12일상오6시께 부산시影島區瀛仙洞2街 강남의원앞 비탈길에세워둔 부산7자4201호 용달 1톤트럭(운전사 지용구·29·南區水營洞192의2)이 갑자기 미끄러져걸어가던金달이씨(79·影島區南港洞192의2)를치어 숨지게 했다.【聯】

◆女學生 연탄가스 中毒死 【春川】12일상오9시30분께 강원도春川市溫衣洞3통5반 정재민씨(49)집 전넌방에서 자취를하던 효신상업전수학교 3학년 김영민양(20)과 박종순양(20)이 연탄가스에 중독, 김양은 숨지고 박양은 중태에 빠져있는것을 주인 정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聯】

韓國船員1명 失踪 英근해서 船舶火災

【플모드(英國)AP=聯】파나마선적의 화물선 베이·플럽호(4만톤)가 11일 英國서남 1천6백㎞ 대서양상에서 불이나 타고있던 韓國人선원1명이 실종됐다.

이 화물선의 한국인선장은 영국해안경비대의 권고로 15시간에 걸친 실종자수색작업을 포기하고 선원 26명과 함께 英해군의 헬리콥터편으로 사고현장을 떠났다.

한국인실종선원과 선장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플모드해안경비대는 한국인실종선원은 사고당시 엔진실에 있다가 변을 당했으며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文化財가치 희박 瑞山앞바다 引揚유물

【瑞山】속보=지난9일 충남瑞山郡近興面 안흥앞바다에서 인양한 유물은 문화재가치가 희박한것으로 현지관계관들은 보고있다.

12일 瑞山郡문화재 담당직원에 따르면 이번에 인양한 유물58점중 청자사발등 7~8점은 고려말기, 나머지 50점은 18세기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문화재 관리국의 지시에따라 안흥지서 창고에 보관하고있는 이 유물은 금명간 서울로 옮겨져 전문가의 감정을 받게된다.【聯】

디스코추던 高校生 단속피하다 電動車에 부딪쳐重傷

9일하오10시55분께 서울東大門區典農2洞597의3 디스코클럽 「스타워즈」(주인 朴錫圭·32)에서 학교친구 7명과함께 춤을추던 金英三군(17·서울S공고2)이 장내방송에서 『경찰이 단속나왔으니 미성년자는 피해달라』는 소리에놀라 홀비상구를통해 달아나면서 불로크담을뛰어넘다미끄러지면서淸凉里에서 回基역으로 달리던제350호 전동차(기관사朴慶壽·35)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을 입었다.

동행했던 친구 崔모군(17·S공고2)에 의하면 金군등 7명은 회비2천원씩을 거둬 이날 하오6시께 이디스코클럽에 입장했다는것인데 디스코재키가 음악을 중단하고미성년자도피 권유방송을 하자 40여명은 정문을통해 도망쳤는데 金군등 4~5명은 비상구를 통해 전철길로 빠졌다는것.

이날 디스코클럽에는 70여명이 있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클럽주인 朴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있다.

朝總聯서 강제募金 北괴, 공작금마련차

【北京=聯】북괴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일본공연을계기로 朝總聯系在日교포로부터 20억엔을 강제모금, 일본을무대로한 對南파괴공작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統一日報가 보도했다.

東京의 교포일간지 統一日報는 12일 북괴상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북괴가 이자금으로 3개월간 군사및 사상훈련을 시킨 朝總聯系공작대를 4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한국에 침투시켜 소란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3일 일본에온 소년예술단 1백여명은 8일 東京을 시발로 6월7일까지 일본전국을 돌며 50여차례 공연할 예정이나 프로그램이 金日成·正日부자예찬일색이어서 벌써부터 비판의 소리가 일고있다.

어린이 체육장으로 開放 光州 대공원內 잔디밭등

【光州】光州市는 光州어린이대공원내 잔디밭과 무등경기장 둘레 포장길을 어린이체육장으로 개방키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축구장전용인 어린이대공원내 야구경기장 시설을 강화, 야구와 축구장으로 함께 사용하도록하고 선수와 같은 무료로 어린이단체는 70원씩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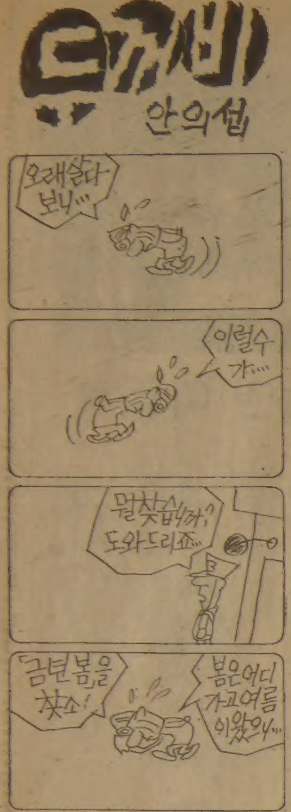
大邱市 敎委 노름教師등 6명解任

【大邱】大邱시교위는 12일 주말을 이용 식당에서 도박판을 벌인 시내 활원국교교사 趙모(37)·趙모(52)·尹모(44)·고용원 黃모씨(38)와 동인국교 교사 李모(36)·수창국교 吳모씨(35)등 국교교사 5명과 고용원 1명등 모두 6명을 징계위에 회부 해임 조치했다.

시교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6일과 27일 이틀동안 시내壽城區 黃金洞 활원국교뒤 모간이식당에서 판돈 4백여만원을 놓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노름판을 벌였다는 것이다.【聯】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美術·人脈을 캔다

도깨비 안의섭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탈의 眞實 세브란스病院 李成洛 피부課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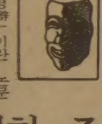
피부병까지 表現한 조상의 순박함이…

본래의 상징을 왜 「탈」로 잡았는가고 묻는 질의가 많았다. 그때마다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은 「한국인」의 참모습을 예로부터 「탈」로 상징돼 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탈」만큼 서민의 희로애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있는 탈이 지구상에 없다는게 정평인것. 리얼하다못해 서민의 얼굴에 나타난 피부병까지 그대로 표출시키고 있는게 우리의 「탈」인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피부과과장 李成洛교수(44·사진)는 탈에 나타난 피부병을 연구, 「한국예술에 나타난 피부병변」이란 논문까지 발표한 사람. 정신과의사들이 이 탈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지만 「탈과 피부병」은 좀처럼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李교수는 연구실벽에 걸려있는 탈을 가리키며 『저 탈은 얽이 붙었고 이 탈은 오타씨모반증상이 나타나 있다』고 척척 진단한다.

그가 우리나라 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75년부터다. 뮌헨大에서 공부할때 마르히오니니 교수의 「예술작품에 나타난 피부병변」이란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 그 감명은 서울에 와서 연구로 이어진다.



어느날 小公洞지하도를 지나다 통영오광대놀음에서 쓰는 홍백탈을 보았을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얼굴반쪽이 빨갛고 다른반쪽이 흰 이 탈은 피부과에서말하는 스터그 베버증후군 (Sturg Weber) 증상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뒤 「옴뚝탈」에선 우리 조상들이 옴을 앓았음을 알았고 「문둥탈」에서는 옛날에 문둥병이 만연한 사실을 짐작했다.

하나하나 탈을 모으고 연구해 감에따라 탈의 예술성에 대해 안목이 높아짐과 함께 아무 가식없이 피부병까지도 표현한 우리조상의 진실성에 고개가 수그려졌다. 얼굴이 깨끗하고 밋밋한 일본이나 중국탈과 비교하니 더욱 그러했다.

수많은사람을 상대해야하는 의사로서 우리조상의 순박함이 그리워지기만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인은 진실한 사람들인가. 그는 그것은 아직 진단해내지 못했다고했다. 【朴珍列기자】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CHINA HOUSE / Bathurst / Bayview / Bloor

GOLDEN CHINA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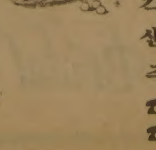
경운회(경기여고)
회원여러분께 알립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맞이한다는 것은 해마다 새롭고 희망에 찬 기쁨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각가정에 새꿈이 무르익어가는 봄을 맞이하소서!
봄맞이 동창회를 아래와 같이 자리를 마련하오니 부부동반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ㅁ때 : 1983년 4월29일(금) 오후6시30분
ㅁ곳 : 마초 레스토랑 4035 Gordon Baker Rd. (Steeles Ave. 한블럭 남쪽 on Victoria Pk. ☎ 498-1300)
ㅁ연락처 : 차순자(698-6907) 박영자(736-1222
경기여고동창회토론토지부
(경운회)

비데오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 (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첵크·업하고 교환해 줌.
TRANS AMERICAN
☎ : 636—0906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셀본서쪽)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 한 구
☎ : 247—7161
1575 WESTON RD.

HoneyHome BakeShop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 TRAY
주문 받습니다.
☎ : 961—9780 MRS. 장
☎ : 536—1908(R)

姜斗泰、負傷딛고 再起

金星을 頂上에

實業배구 패기의高麗증권 따돌려

攻守완벽… 「제2의 排球人生」 다짐

姜斗泰(25·197㎝·86㎏)의 강타는 어디서 나오는가。

지난해 6월 치명적인 오른쪽 어깨부상으로 선수생명이 끝난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姜斗泰는 신생팀 現代自動車써비스와 高麗證券의 패기찬 추격을 따돌리고 金星이 실업1차연맹전 우승을 차지하는데 수훈을 세웠다。

姜斗泰만큼 많은 부상을당한 선수도 드물다。 성지공고 시절 오른쪽 발목을 다쳤고 이후 왼쪽 발마저 다쳤다。 姜이 결정적인 부상을 입은 것은 지난해 6월。 일본서 벌어진 NHK컵대회서 세계랭킹2위 쿠바를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했던 姜은 귀국한뒤 병원으로부터배구선수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극하건 파열이란 진단을 받았다。 오른쪽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근육중 하나인 극하건이 파열, 오른쪽 어깨에 야구공 반쪽이 들어갈만한 공간이 생겼다。

이때문에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치 못하고 11월 아시안게임에만 간신히 코트로복귀했다。 그러나 극심한 통증으로 한때 배구를 포기하고 서독유학을 결심했던 姜은 위기를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제2의 배구인생을 출발한다는 각오로 자신과 싸웠다。

처음에는 손을 제대로 들어올리지도 못할지경이었으나 확기도 시술과 동호들이 밤새워가며 마사지해주는 정성을 회복하지 않기위해 전력투구했다。 소속팀 金星의 극진한 보살핌도 姜을 재기시키는데 큰몫을 했다。 한달전부터는 마사지사를 고용, 선수들과함께 숙식을 시키며 姜의 어깨를 낫게하는데 진력했다。 수시로 부상부위를 지압, 어깨통증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姜만큼 종합적인 기량에서 완숙한 플레이를 보이는 선수도 많지않다。 現代自動車써비스의 姜萬守、高麗證券의 張允昌과 함께 오픈공격에서 정상권을이루지만 블로킹과 수비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존재다。 姜을 앞에두고는 국내외강타들은 모두 머뭇거린다。 볼과 선수의 손놀림을 함께쫓는 블로킹은 천벽。

장신선수들에게 따르기쉬운 수비헛점도 찾아보기 힘들다。 거구를 가볍게 날리며 볼을 살려내는 모습은 날렵한 제비같다。 지난해 12월27일 朴英美씨와 결혼한이후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12일高麗證券과의 경기 백어택을두번이나 성공시키는등 공격에서 6、블로킹에서 6점등모두 12점을 따냈다。 그러나여이 뀐치에 몰릴때마다 동료들을 부추키고 사기를 돋우는등 팀리더로서의 역할도잘 하고 있다。 다만 동양에서상대블로킹이 높을경우 이를제대로요리못하는것이 흠。 【金仁奎기자】

現代、미도파完封우승

2連覇…월등한 攻擊파워 돋보여

金星과 現代가 실업배구1차연맹전 남녀부 우승을 차지, 金星이 7連覇 現代가 2連覇했다。

金星은 12일 장충체육관서 폐막된 대회최종일 남자부결승전에서 주장 安炳萬、李殷洪、嚴漢柱 姜斗泰 嚴鍾錫 세터李範柱등 주전전원의 고른 활약으로 張允昌 柳重卓이분전한 高麗證券을 3-0으로 격파했다。

특히 1백80㎝의 단신 嚴鍾錫은 仁荷大시절 빛을보지 못하다가 이번 연맹전서 맹활약, 눈길을 끌었다。

여자부에서는 공격파워가 월등히 앞선 現代가 美都波를 3-0으로 꺾고 지난 종합선수권대회서의 참패를 41일만에 설욕했다。

李恩敬 南明籌 金英淑으로 이어지는 現代의 강타는 위력적이었다。

美都波블로킹을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코트에 내리꽂혔다。

첫세트 11-9로앞선 現代는 美都波의 李明姬 李云任등에게 강연공을 허용, 12-12타이。 그러나 상대공격실책과 李恩敬의 왼쪽강타로첫세트를 3점차로 따냈다。 2세트 13-7로 앞서던 現代는 또다시 막판추격을 허용, 13-12까지 몰렸지만 金松根 金貞順의 활약에힘입어 역시 3점차로 따냈다。

美都波는 마지막 3세트서 초반한때 접전을벌였으나 5점에 묶인채 완패했다。

◇최종일결승전적

▲여자부

현대 3 (15-5 15-12 15-12) 0 미도파

▲남자부

금성 3 (15-10 15-11 15-12) 0 고려증권

◇개인상

▲최우수=姜斗泰(금성) ▲공격=張允昌(고려증권) 鄭敬愛(미도파) ▲수비=柳重卓(고려증권) 李云任(미도파) ▲세터=李範柱(금성) 鄭琴仙(현대) ▲감투=崔善起(한전) 李仁(현대자동차) 朴美香(한일합섬) 崔順子(도로공사) ▲인기=金相權(고려증권) 朴美照(미도파) ▲지도=曹培浩(금성감독) 田好寬(현대감독) ▲심판=張鍾述

金花福선수 은퇴식

한편 지난77년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서한국을우승으로이끌고오랫동안국가대표선수를 지냈던 美都波의 金花福선수가 이날 대회폐막식에서 은퇴식을 갖고 코트를 떠났다。

◇再起의 强打… 부상을 무릅쓰고 재기, 金星의정상자리를 지킨 姜斗泰(右)。 12일 高麗證券과의 결승전서 張允昌(3번) 金仁玉(7번)의 블로킹벽을 뚫고 강타를 터뜨리고있다。

축구「슈퍼리그」出帆

5개팀 參加… 年40게임 치러

5월7일부터

축구슈퍼리그가 오는5월7일 출범한다。 대한축구협회 崔淳永회장은 12일 축구중흥을위해 슈퍼리그를 창설, 5월7일하오3시 서울운동장서 油公과 할렐루야의 개막전을 스타트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할렐루야 油公등 2개프로팀과 大宇·國民銀行·浦鐵등 3개아마 실업팀등 5개팀이 참가하는 슈퍼리그는 침체된 국내축구를 활성화시키고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축구 약진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한것。

전·후기로 나누어 더블리그로 20게임씩, 연간 40게임을 치르게될 슈퍼리그는 통산전적으로 순위를 가리게되며 팀별연고지는 ▲油公이 서울 경기 인천 ▲할렐루야는 강원 충남 충북 ▲浦鐵 경북 대구 ▲國民銀行 전북 전남 ▲大宇 부산 경남등으로 결정됐다。

경기방식은 홈 앤드 어웨이제도를 채택했으나 당분간 매주토·일요일에 각연고지의 주요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전주 강릉등5개도시를순회하며 하루2게임씩 벌인다。

전기는 7월3일까지, 후기는 7월9일부터 펼치게되며 하반기부터 야간경기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축구팬들을 확보하기위해 대대적인홍보활동과 각팀별로 치어걸등의 응원단을 조직하고 프로야구와같이 어린이 회원도 모집한다。

당분간은 부녀자와 어린이를 무료로 입장시키고 자동차·TV·냉장고 생활용품등 경품을 마련한다。 입장료는 강릉·전주는 각각5백원, 서울 부산 대구는 A석 1천5백원 일반석 1천원 단체 5백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약4억 2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슈퍼리그는 입장수입、TV중계료및 광고수입등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우승팀 5천만원 준우승팀3천5백만원, 3위팀 3천만원 4위팀 2천5백만원 5위팀 1천5백만원이 순위에 따라 상금이 차등지급된다。

개인상으로 최우수선수상、득점상、어시스트상、인기상、모범상、지도상、베스트일레븐상등이 있으며 각경기마다 득점상 어시스트상 모범상 수상선수를 선정, 부상이 주어진다。

슈퍼리그는 축구협회와 한국방송공사 공동주최하며 프로리그의 대회장에 국무총리를 추대했다。

◇전기리그 일정 (경기시간 하오3시)

월 일	장소	대진
5·7	서울	유공—할렐루야 포철—대우
〃 8	〃	할렐루야—국민은 유공—포철
〃 14	부산	유공—할렐루야 대우—국민은
〃 15	〃	유공—국민은 대우—포철
〃 21	대구	대우—국민은 포철—할렐루야
〃 22	〃	유공—대우 포철—국민은
6·25	전주	유공—대우 국민은—할렐루야
〃 26	〃	할렐루야—대우 국민은—포철
7·2	강릉	유공—포철 할렐루야—대우
〃 3	〃	유공—국민은 할렐루야—포철

농구協 "스카우트物議 일으킨탓"

成貞兒、국가대표팀서 除外

스카우트 파문을 일으켰던 成貞兒(16·삼천포여중2년)가 국가대표팀에서 제외됐다。

대한농구협회는 오는 7월 제9회 세계선수권대회(브라질)와 84년 LA올림픽에 대비、기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여자대표후보 18명의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했는데 스카우트파문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成貞兒를 제외했다。

농구협회는 成貞兒를 제외한데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뿐만아니라 다른 선수에 미칠지 모르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 일단 제외시킨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2일 새 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내정된 林永甫씨와 趙勝延씨는 成貞兒를 대표팀에 추가 선발해 줄것을 요청, 어른들의 스카우트 싸움때문에 장래성있는 선수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三星·太平洋、결승진출

亞洲 도시대항농구

【쿨라룸푸르=閔炳宅특파원】 한국의 三星電子와 太平洋化學이 제2회 아시아 도시대항 농구선수권대회 남녀부결승전에 각각 진출했다。

11일밤 이곳 네가라 체육관서 벌어진 남자부 경기에서 三星電子는 마닐라를 88-64로 제압, 12일밤 10시반(한국시간) 중공 廣州팀과 예선1·2위전을 갖게되었다。

여자부서 太平洋化學은 중공長春팀에 59-58로 패해 일본·중공·太平洋이 각각 2승1패 동률을 기록, 골득실차에서 앞선 太平洋과 일본이 결승전에 올랐다。

◇전적(11일)

▲남자부

삼성전자(3승) 88-64 마닐라(3패)

쿨라룸푸르(2승2패) 60-53 동경(3패)

▲여자부

동경(2승1패) 73-24 홍콩(3패)

장춘(2승1패) 59-58 태평양(2승1패)

車範根、伊팀에 간다

8월부터…許丁茂는 할렐루야와 계약

서독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중인 車範根이 오는 8월부터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1위팀 AC토리노팀으로 이적하게된다。

車範根은 오는24일 서독인 매니저와함께 이탈리아로가 AC토리노팀의 경기를 관전한후 3년기한의 입단계약을 할 예정이다。 계약조건은 연봉1억2천만원에 매달 1백50만원의 경기수당과 집 보험 자동차및 가정부를 제공받고 세금은 구단에서 부담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덜란드 프로축구팀 아인트호벤에서 뛰고있는 許丁茂는 최근 할렐루야와 입단계약을 체결했다。 許丁茂의 계약금은 2천만원, 연봉은 1천2백만원으로 A급대우를 받는다。 許丁茂는 아인트호벤과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6월 귀국한다。 할렐루야와의 계약기간은 3년。

◇車範根

◇許丁茂

三美、OB에 첫勝利

延長13회서 6點뽑아내

프로야구

MBC 青龍은 12일 잠실홈구장에서 三星라이온즈의 수비실책에 힘입어 운좋게 1점을추가, 5승3패로 단독선두를 쾌주하고있다。

5회말 투아웃 三星선발 좌완 李善熙는 이때까지 산발5안타 삼진2, 四死球2개로 역투하고 있었다。

MBC 9번 鄭永基의 타구는 평범한 땅볼。 재빨리 볼을잡은 三星3루수 金埈錫이 1루로 송구했으나 너무높아 1루수 朴永昊가 점프하여잡는사이 鄭은 1루에 세이프되었다。

언짢은 기색으로 마운드에선 李善熙는 다음 1번 李海昌에게 좌전안타를 맞았고 2번 金在博에게도 중전안타를 맞았다。

실점을 막으려고 조급히뛰어들던 三星중견수 許奎沃이 간발의차로 볼을 뒤로 빠뜨리는사이 2루주자 鄭永基 1루주자 李海昌 타자주자 金在博이 모두 홈으로 뛰어들었다。 일단 MBC는 행운의 5회말 3점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敗將 李善熙는 한동안 마운드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금년시즌 2번째 기록한 패배였다。

MBC는 3회초 선두9번 鄭永基 1번李海昌의 연타로 1死1、3루에서 첫득점 찬스를 마련, 타석에나온 3번李光殷의 라이트 깊숙한플라이를 틈타 3루의 鄭永基가 홈으로 뛰어들다 三星우익수 張孝祚의 번개같은송구에 걸려 태그아웃당했다。

三星은 6회까지 MBC선발 河基龍의 역투에 산발 4안타로 눌렸으며 7회초2死후 7번 千普成 8번대타 朴勝浩가 1루타로 1점을 만회하는데 그쳤다。

河基龍은 이날 6회동안 26타자를맞아 6안타、포볼1、자책점1로 금년 시즌2승1패를 마크했다。

7회2死후 구원등판한 좌완 柳鍾兼은 2·3회동안 9타자를 안타1、포볼1、무실점으로 막아 세이브를 기록했다。

大田경기서 三美는 연장13회초 대거6점을뽑아 창단후 OB에 16連敗끝에 첫승리를 올렸다。

◇12일전적

◆잠실

삼성 000 000 100 — 1

MBC 000 030 00× — 3

◆대전

삼미 002 011 01…6 — 11

OB 013 000 10…0 — 5

(13회연장)

▲홈런=黎光玉(6회·삼미) 申慶植(2회·OB)

金聖鎬、결승홈런

白虎旗야구 浦鐵 3회전先着에 수훈

추계실업리그 우승팀인 浦鐵이 복병 成均館大에 2-1로 힘겨운 승리를 거두고 星武를 대파한 漢陽大와 33회 白虎旗야구대회 3회전(8강)에 선착했다。

12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2회전 첫경기에서 浦鐵은 2회말 成均館大5번 張彩根에 솔로홈런을 맞아 1-0으로 선제당했으나 릴리프로 들어온 좌완에이스 李佑倚이 成大타선을 산발시키는 한편 4회초 5번申鉉碩의 좌전적시타로 동점을 만들고 8회초 2死후4번金聖鎬가 좌월1백40m 대형결승홈런을 날려 2-1로 승리했다。

이날 안타수에서 9-5로 우세했던 成大는 5회말 1死1、3루의 황금찬스를맞았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 실패하고 7회말에는 1死3루에서 스퀴즈번트가 포수플라이가 되는바람에 더블플레이를 당했다。

이날 6회초 無死1、2루의 위기에몰렸던 成大언더핸드투수 鄭晴敏은 침착한 코너워크로 후속타자들을 모두 삼진으로 잡는등 연속5개의 삼진을포함 13타자중 7명을 3진아웃시키는 위력을보였으나 단1안타가 결승홈런이되 패전투수의 불운을 맛보았다。

한편 漢陽大는 李鍾와의 드리런、金相國의 솔로홈런등을 묶어 星武를 11-2로 대파하고 준준결승에 올랐다。

이날 벌어진 1회전 마지막경기에서는 韓國化粧品이 仁川專門大를 15-9로 꺾었다。

◇제4일전적

◆2회전

포철 000 100 010 — 2

성균관대 010 000 000 — 1

▲홈런=張彩根(2회·성대) 金聖鎬(8회·포철)

한양대 227 000 000 — 11

성무 100 000 010 — 2

▲홈런=金相國(2회) 李鍾와(3회·3점·이상한양대)

▲1회전

인천전문대 300 051 000 — 9

한국화장품 501 002 34× — 15

▲홈런=張正好(3회) 高連基(6회·2점·이상한국화장품)

한국、14세部서우승

홍콩 에이지테니스

10일 폐막된 홍콩에이지그룹 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14세부 남녀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선수단이 한국테니스협회에 알려왔다。

한국의 金一順(안양고) 崔支邦(중앙여중) 조는 필리핀을 2-0으로 꺾고 여자14세부에서 우승했으며 남자14세부에서도 李德熙(연서중) 盧承伯(마포중) 조가 홍콩에 2-0으로 승리, 우승을 안았다。

또 남자 16세부에 참가한 재미 유학선수 崔熙峻은 단복식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적

▲남자복식결승(14세부) 李德熙 盧承伯 2 (6-3 7-6) 0 라맹이(홍콩)

▲동여자부 金一順 崔支邦 2 (6-1 7-6) 0 카스틸레조 리에즈(필리핀)

데杯준결승 韓日戰

5월6일 日서개최

【東京=聯】 日本테니스협회는 11일 데이비스컵 아시아지역 준결승전인 한국-日本경기가 오는 5월6일부터8일까지 日本 아이찌(愛知)縣 도요따(豊田)市에 있는 나고야·그린 테니스클럽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日本테니스협회는 또 대회 추첨은 5월4일 愛知縣知事공관에서 있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브라질프로팀 招請

蹴協、4차전 가져

대한축구협회는 브라질의 프로팀 포르투게사·데·데스포르토스팀을 초청,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국가대표·청소년대표·할렐루야와 서울및 지방에서 4차례친선경기를 벌인다。

사웅파울로에 본거지를 두고있는 포르투게사팀의 4게임의 개런티는 5만달러。

축구협회는 L.A올림픽에 대비하여 새로구성될 국가대표팀의 전력강화를 위해 2차례 경기를 갖고 6월의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멕시코)에 출전할 청소년대표팀과 1게임, 국내프로팀인 할렐루야와 1게임을 치르기로 방침을 세웠다。

바예스테로스 優勝

마스터스 골프대회

【어거스타(美조지아주)聯】 스페인의 세베리아노·바예스테로스(26)는 11일 이곳에서 폐막된 제47회 마스터스골프선수권대회에서 토탈 2백80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張吉山 <1714>

黃晳暎 作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74)

들 사이로 엇기며 부딪쳐서 흘러내리는 물 소리가 어둠 가운데 [illegible]데 먼데서부터 용연(龍淵)의 폭포 소리가 바람결에 뒤섞여서 쏴아 하는 고함을 내지르고 있었다。 큰 고함에 간간이 또랑또랑 흘러흘러 보름보름 하는물소리가 부르고 답하며 원향이를 지나쳐 가고 있었다。 용연에 이르니 달빛에 반사된 폭포수는 하늘에서 내리꽂힌 신칼처럼 번뜩이고 물 위에는 부서진 달빛의 조각들이 흩어지고 있었다。 원향은 다시 그 자리에 엎드려 자신을 점지하였다는 용왕님께 빌었다。 합고개 만신께서 처음 원향이를 보자마자 용녀(龍女)라고 불러주지 않았던가。

원향이는 폭포의 원류를 따라서 올랐고, 그 위에는 넓은 바위 위로 맑은 물이 잔잔히 넘쳐나고 있었다。 이곳이 알자리라 용신께서 알 낳는 곳이어서 원향은 다시 기도를 드리고 사황봉으로 올랐다。 길이 차츰 가팔라지고 험해져서 원향은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벗겨졌다。 밤새껏 기어올라 봉우리 꼭대기에 오르니 달은 벌써 져서 사방은 칸칸칠흑인데 구월산 상상봉은 자못 넓고 편편하였다。 원향은 동남쪽의 바위 곁에 가서 앉아 숨을 돌렸다。 그리고는 한참하여 일어나 천왕당 자리에다 대고 절하기 시작하였다。

홀연히 바람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그 여자의 치마폭을 한껏 날리면서 불어오기 시작하였다。 원향은 입을 반쯤 벌리고 바람을 마음껏 들이마셨다。 바람은 원향의 머리털을 날리고 뺨을 어루만지고 몸을 스치면서 다가왔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 가운데서 길다란 놀의 띠가 나타나고 있었다。 새벽 바람과 더불어 빛이 번지고 있었다。 이터전 백성들의 자리를 살피시던 단군 할아비의 눈길이 지금 트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바람은 바야흐로 원향의 고향 풍천(豊川) 여기 포 갯가에서 해를 맞아 들이쳐오는 바람이 아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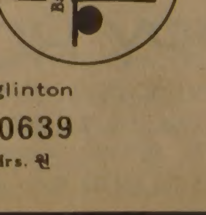
어쨌거나 날은 밝고 있었다。 놀의 띠는 차츰 번져나가 치마폭에 떨군 꼭두서니물감처럼 아니면 구월산 청쪽의 분홍에서 아기 무당의 뺨에 번진 익은 복숭아의 도홍으로 이리 점점 저리 물을 번지고 뻗치고 새어 나오는 참이었다。 바다며 하늘의 위는 아직은 야청과 숙색、그리고 놀이 번져가면서 부터 그 근처는 보라였다。 구름도 있고 어둠을 벗기 시작하는 봉우리들도 무르무르 있는다。 드디어 빨간 해가 구월산 동편 드넓은 어루리벌의 실개천과 강줄기들을 물들이며 떠올라 왔다。 아득하게 구름 사이로는 연무와 진초록의 숲이 보이고 뒤로는 이제사 빛을 받기 시작하는 검은 바다 위로 빛의 반점이 번지기 시작한다。 낙엽송과 잔목들은 햇빛 속에 너울대고、저 아래 할아비께서 승천하신 단군대와 장재이벌의 너른 가슴파이 보였다。

아사봉 단군대 사황봉、기중에서 이 자리는 성조께서 나라의 터전을 잡기위해 등람(登覽)하신 곳이다。 산은 봉봉 맥맥이 꿈틀꿈틀 휘 돌아져 뻬쳐다가는 스을쩍 굽어져 흐느적이다가 다시 가파르고 또 흘러 축 처지면서 들판으로 숨는다。 동남향으로 안악 신천 재령의 어루리벌 장재이벌 나무리벌이 펼쳐있고 서북으로는 황해와 대동강 어구가 바라보인다。 원향은 두 손을 합장하고 섰다가 문득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온 몸이 허공에 둥실 떠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 여자는 입을 벌리며 뒤로 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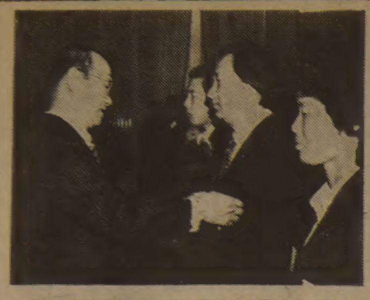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全대통령이 우수새마을지도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있다.

"都市새마을運動 활성화를"
全대통령、우수指導者에 훈장

全斗煥대통령은 11일 하오 청와대에서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금년도 1·4분기 우수새마을지도자 29명을 접견하고 새마을훈장등을 준 뒤 다과를베풀며 공로를 치하했다. ☆受勳者名單2面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도시새마을운동이 농촌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기때문에 도시에도 농촌못지않게 이운동이 보급되도록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하고 『모든국민들이 여러분들처럼 건실하게 생활하는 정신을 갖게되도록 앞장서 의식개혁을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우리국민모두가 굳게 단결해 지금처럼 노력해 나가면 멀지않아 北韓공산집단도 우리의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을수없고 경제협력도 요청않을수 없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4鑛區 6월 본격試錐

대륙붕 제4광구 시추작업이 6월부터 본격착수된다.

11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제4광구 공동조광권자인 한국의 석유개발공사와 미국의 자펙스社는 오는 6월1일부터 약3개월간 1개공을 시추탐사할 예정이다.

시추작업을 벌이게될 해역은 제주도 남방 2백㎞ 지점에 위치하는 넓이 4만2천4백49㎢의 제4광구 가운데 油開公과 자펙스社가 공동조광권을 가지고있는 6천7백50㎢이다.

4광구는 지난 81년8월 油開公과 자펙스社가 50대50으로 공동조광권을 설정한후 탄성파탐사등 물리탐사를 6백22㎞까지 실시한결과 5~6개의 배사구조가 확인되어 천연가스의 매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평가됐었다.

이번 시추탐사에는 탐사공 굴착비만 3백만달러의 경비가 드는데 소요경비는 전액 자펙스社가 부담하고 두번째 탐사시추부터는 자펙스社가 65% 油開公이 35%씩 부담하게된다.

솔로몬首相에 勳章

全斗煥대통령은 11일 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솔로몬·아일랜드의 마마로니수상을 접견하고 修交훈장 光化大章을준뒤 요담을 가졌다.

全대통령과 마마로니수상은 요담에서 양국간의既存우호관계를더욱돈독히하고경제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한국이개발도상국가로서 공산부의와 대치하고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開途國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마마로니수상은 이에 전적으로 同感을 표시하고 자신의 이번 訪韓이 각분야에걸쳐 양국관계의 구체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GATT總長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11일 하오 青瓦臺에서 關稅무역 일반협정(GATT)의 아더·던켈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토지再買入 수사 金總理, 보고받아

金相浹국무총리는 11일 상오 중앙청집무실에서 裵命仁법무장관으로부터 非業務用토지 再買入사건과 金根祖씨 폭행치사사건수사에대한 보고를 받았다.

토론토

시청으로 연결하고 싶습니까?

83년3월20일부터 시청의 전화국번호가 367로부터 947로 바뀝니다.

정치議案·引責 논란일듯

임시國會 어제開會

의장 蔡汶植·부의장 尹吉重·高在清씨 選出

"對話로 정치의 內實보여야" 蔡의장 開會辭

◇尹吉重부의장

◇高在清부의장

11代국회의 後半2년을 출발하는 제1백16회 임시국회가 20일간의 會期로 11일개회되었다.

국회본회의는 이날상오 最年長者인 金判述의원(民韓)의 사회로 새의장단을선출, 의장에 蔡汶植(民正), 부의장에 尹吉重(民正)、高在清의원(民韓)을 각각 뽑았다.

無記名비밀투표로 실시된 이날 議長團선거에서 蔡의장은 在席2백72명중 2백23표를, 尹·高두부의장은 在席2백72명중 각각 2백28표와 2백4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날 의장선거에서는 국민당의 李萬燮의원이 電擊的으로 출마를선언, 34표를 얻었다.

국회는 이날 의장단선거에이어 하오에는 俞泰興대법원장 金相浹국무총리와 각료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졌다.

蔡의장은 개회사를통해 『국회에는 與野가있고 소속정당과 政派가 다르며 각자의 정치소신이 다르나 巨視的으로 보면 결국 같은 국가적 목표를 향해가는데있어 세부적인 방법이다를뿐』이라면서 『앞으로의 우리국회는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관용과 自重으로 和合정치의 內實을 보여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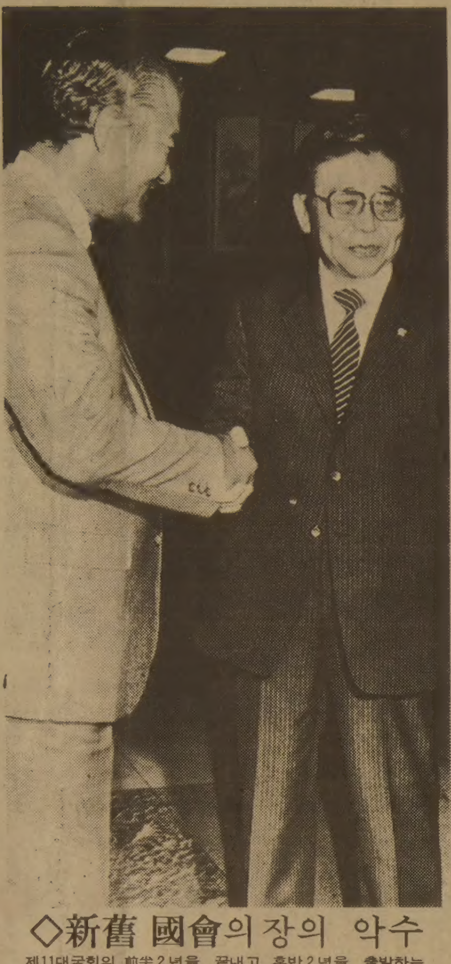
그는또 앞으로 국회운영에대해 『多樣性은 있을지언정 극한대립이나 獨走는 쉽게 追放할수 있는것이며 조화의 妙속에서 합리적인 최대공약수를 찾아나갈수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임시국회는 특히 野黨측이 지방자치제 실시와 國會法개정등을 강력히 주장하는등 이른바 政治議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하는 한편、경찰고문치사와 유학생 採點不正사건등과관련 내무·문교장관에 대해 引責공세를 펼 방침이어서 이를 방어하려는 民正黨측과 상당한 논란을벌일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2일 金相浹국무총리로부터 국정보고를 듣고 ▲13일에는 13개상임위원장과 2개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며 ▲14일 民正·民韓·국민등 3黨의 대표연설을 들은뒤 ▲15일부터 21일까지 본회의 對정부질문에 들어간다.

民韓、질문자選定

民韓黨은 11일 이번임시국회본회의에서의 對정부질문자로 정치·외교·안보부문에 申鎭洙 吳上鉉의원、경제부문에 李興錄 朴完奎의원、사회부문에 柳在熙 黃山城의원을 선정했다.



◇新舊 國會의장의 악수

제11대국회의 前半2년을 끝내고 후반2년을 출발하는 11일의 국회自祝리셉션에서 새의장으로 선출된 蔡汶植의장(右)이 前任者인 丁來赫전의장과 악수를 나누고있다.

국민、常委배정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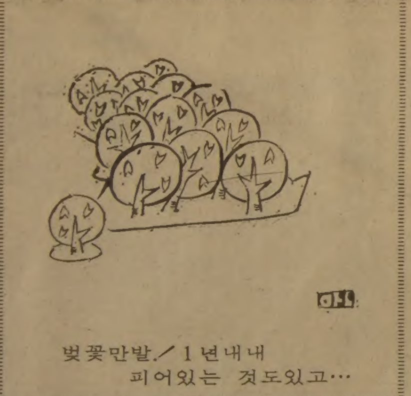
국민당은 11일하오 소속의원들의 국회常任委를 다음과같이 配定결정했다.

▲法司=申喆均 ▲外務=李萬燮 林德圭 ▲內務=李成一 李奉模 曺德鉉 ▲財務=李聖秀 趙炳鳳 ▲經科=趙邢九 魯且奎 ▲國防=尹錫民 趙炳奎 ▲文公=李東鎭 姜棋弼 ▲農水産=金光濟 金鍾河 金基洙 ▲商工=趙一濟 金永生 ▲保社=李鍾聲 金完泰 ▲交遞=金遺腹 李弼雨 ▲建設=金輪 朴在旭

丁來赫·李載瀅의원 民正상임고문 任命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11일 丁來赫전국회의장과 李載瀅전 民正黨대표위원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

社會漫評



벚꽃만발./ 1년내내 피어있는 것도있고…

新亭·木洞에 新市街地

百40만坪조성 住宅 3만家口 건설

서울市발표

첫 토지公營개발方式 시도 坪當15~17만원에 수용계획

서울江西區木洞·新亭洞일대 安養川서쪽지역 1백40만여평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토지공영(公營)개발방식에 의해 개발된다.

金聖培서울시장은 11일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값싸게 공급하고 불량지역을 정비해 토지이용도를 높임으로써 국제수준의 쾌적한 신시가지를 건설하기위해 앞으로 3년안에 이지역을 도시설계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총9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토지매입비등 1단계 사업자금은 국민주택자금등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주택분양금으로 공공시설사업비에 투자하게된다.

토지공영개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해당지역의 토지를 모두 사전에 사들여 미리계획된 도시계획에 따라 주택、공원、도로등 각종 시설물을 배치하며 주택건설、분양등 일체의 사업을 공공기관이 직접주관하되 그 개발이익을 또다른공공시설투자에 쓰는 토지공개념(公概念) 사업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실시된다.

서울시는 4백50만㎡(1백40만여평)에달하는이 지역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2백25만㎡에는 주택을、1백89만㎡(42%)에는 공공건물등、36만㎡(8%)는 상업용지로 활용키로 했다.

주택용지에는 2만4천~3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인구 10~12만명이 수용되는데 대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되는데 폭넓은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0평정도의 소규모 아파트에서 60평정도의 대형아파트까지 다양하게 짓겠다는것.

또 정부의 임대주택확대공급시책에따라 장기간 임대하는 실험적인 임대주택을 되도록 많이 공급한다는 것이다.

상업지역에는 유명유통업체를 유치、백화점등도 건설한다.

이지역은 현재 전역이 생산녹지지역(절대농지)으로 묶여있는 곳으로 대부분(3백84만㎡)이 전답이고 나머지가 대지 또는 기타지목으로 돼있다.

지역내에는 약2천6백동의 불량건물(무허가 또는 유허가)이 들어서 있는데 수년전부터 개발소문이나돌아 투기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지난2월 특정지역(투기억제지역)으로 묶어놓았다.

서울시는 국세청 기준지가(평당15~17만원)를 기준으로 토지를 수용할 계획인데 무허가건물은 보상금을지급하고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철거하고、유허가건물은 보상철거하되 새로 지을 주택분양시 우선권을 주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賃貸주택 건설業者 諸稅감면 촉구

民韓、住宅難해소방안 마련

民韓黨은 11일 住宅難해소를 위해 민간자본을끌어들여 대량 짓는 賃貸주택에대해서는 대폭적인 稅制및금융지원을 할 것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賃貸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방안은 건설업자가 賃貸주택건설을위해 토지를 매입할경우 이들에게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기준地價告示및 先買權을 확대적용해주는 한편 用地收買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건설도중에는 주요건축資材의 부가가치세를 ▲竣工이후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賃貸기간중에는 재산세를 각각 免稅조치해줄 것을 주장했다.

民韓黨은 이案에서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토지개발공사의 소유토지를 우선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일정비율을 우선적으로 임대주택건설자금 공급자에게 배분할것을 주장했다.

民韓黨은 또 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임대주택관리公團(假稱)을 주택공사 산하 또는 독립기관으로 설립하고 건설용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토지개발공사·주택개발공사가 收容공급하되 건축은 주택개발업체를 갖춘 건축업자가 맡도록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地平線

서기 2천년이라야 17년뒤에 지나지 않는다。미국은 그때까지 『달 기지를 갖게될것』이라고 한스·마크 항공우주국(나사)부국장은 장담하고있다。값비싼 금속을 캐내고、우주탐험을 확대하는 기지가될 것이라고 한다。지금은 우주산업회사 중역으로 있는 「나사」출신의 조지·뮬러는 거대한 태양열발전소를 달위에 세우게될 것이라고 내다보고있다。

▼앞으로10년은 환상적인 「별들의 전쟁」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될것같다。레이건 대통령의 수석과학담당보좌관인 조지·키워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레이저광선을 쏘는 거대한 우주거울로부터 시작된다。소련의 핵미사일공격경보가 울리자마자 지름이 자그마치 30m가 넘는 거대한 거울을 실은 로키트가 발사된다는것이다。

▼지구궤도위에 오른 거울은 땅위서 발사된 레이저광선을 받아 지상의 컴퓨터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반사해서、소련의 미사일이 지하발사대를 떠나자 마자 녹여 버린다。소련의 전면적인 핵미사일 공격을 막자면 이런 우주거울이 수백개、레이저광선발사기지도 수백개가 있어야된다。게다가 거울은 또다른 미사일을 겨누도록 재빨리 방향조정돼야한다。

▼지금 미국방성은 10년뒤 레이저위성 요격체제의 시험발사를 목표로 연구를서두르는 중이다。닷새동안의 처녀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성공도 우주전쟁시대가 한발 다가섰음을 알려주고있다。특히 챌린저호에 실려 발사된 추적자료중계위성(TDRS)은 또하나의 쌍둥이위성과 함께 지구궤도를 샅샅이 감시하고、통제하게된다。

▼미국의 통신위성공사(콤사트)는 작년에 4천3백30만달러의 흑자를 올렸다。우리 돈으로 3백33억4천여만원의 노다지다。재작년보다 수익이 23%나 올랐다。게다가 미국은 기상관측위성도 민간에 「불하」할 작정이다。자원탐색위성인 랜드새트 4호는 너비 27㎞쯤의 전불을 가려내고、벼를 심은 논과 콩밭을 구별할수있다。중공과 인도도 뒤질세라 뛰고있는 우주경쟁을 구경만할 것인지 안타까운 노릇이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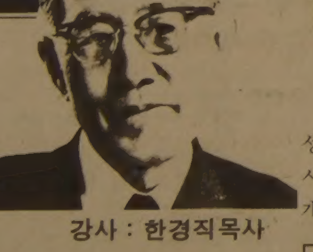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구독신청 배달사고
724 6635 7397
725 5566 6634

한국선교100주년기념 준비연합성회



강사 : 한경직목사

할렐루야!

1984년도 한국선교100주년을 마지함에 앞서 카나다전역에 계신 전 교민이 성령으로 하나되어 새로운 선교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 사업회 총재로 수고하시는 한경직목사님을 모시고 뜻깊은 준비연합 성회를 개최하오니 다함께 참석하시어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일시 · 1983년 4월29일(금), 30일(토), 5월1일(일) 오후7시30분

□장소 : 한인장로교회당(전화 : 762—1495) 1183 DAVENPORT RD

한국선교100주년 토론토기념사업회

자문위원: 최사철, 양세주·서금찬, 여웅순·강인범, 백낙순·박정남, 김중환

대회장: 계화삼 목사

실행위원: 장세택·홍중표·박희민·안병한·정태진, 최상봉·이필주·김용출·윤수복

기념전도성회	학술강좌	청소년대회	기념사업
위원장 김재광	위원장 이상철	위원장 홍신웅	위원장 김용집
박준하	조남유	이정춘	차주성
조이식	김상호	김요한	김원정
조창환	김익선	유재신	유환진
정판일	홍순관	김경진	서인구
조성관	반병섭	김택규	
권순국			
장은덕			

□주최 : 한국선교100주년기념성회준비위원회 □후원 : 토론토한인교역자회

대 회 장 : 계화삼 목사
부대회장 : 박희민 최종봉 목사
준비위원장 : 김재광목사
총 무 : 조이식목사
예비위원 : 조창환 목사
홍보위원 : 장은덕 목사 심상대
회 계 : 고성원,안정식
재정위원 : 구연원, 전택균, 이준희, 조두현, 홍중표
안내위원 : 강대길, 이찬진
음악위원 : 박재훈, 권순국
동원위원 : 정판일, 조성관, 김희하
섭외위원 : 박준하, 조진동
부녀위원 : 윤수복
청년위원 : 정호영
학생위원 : John·리

稼動 기피하는 공해방지 施設

統計로만 늘어날뿐… 有名無實

夜間틈타 폐수放流 일삼아

통계상으로는 공해방지시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시설은 늘고있지않아 여전히문제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기위해 공해배출업소에 융자를알선하는등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한편 신규배출업소 등록때 환경기술감리단의 감리를 거치도록 하는등 특혜를 주고있어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업소는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이를 업체가 방지시설을 형식적으로 가동하거나 경기침체등을 이유로 아예 가동을 기피, 단속이소홀한 야간에 폐수를 방류하는등 오염배출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것이다.

게다가 행정지도와 단속이 일선으로 내려갈수록 형식적인데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이차보전(利差補塡)업무도 은행금리인하에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없어져 방지시설의 효과적설치·가동에 장애가 되고있다.

11일 환경청에의하면 지난해 1년동안 전국의 1만62개 방지시설업체에서 모두 1천9백64건 5백58억여원규모의 대기·수질등 각종 공해방지시설을 마쳐 지난81년의 2천6백76건 4백17억여원보다 설치규모는 금액면에서 34%가 증가했다.

그러나 공해방지시설이 증가하고있지만 이를 설치한 오염배출업소들이 제대로 가동을 하지않아 부적(不適)적발된건수는 지난81년의 17%(2만1천7백42군데중 3천6백9군데)보다 오히려 늘어 82년말현재 대기·수질등 오염배출점검대상 1만8천65개업소중 28%인 3천1백11개업소가 부적으로 적발돼 이중 1백94개업소가 고발되는등 각종 행정조치를받았다. 특히 수질오염의 경우 4천1백59개업소중 절반에가까운 1천9백24군데(46.3%)가 적발됐다는것.

방지시설은 지난78년 환경보전법이 공포된이후 81년부터 본격화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공해방지투자비율은 아직도 0·4%수준으로 日本의 10분의1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환경청은 올해하반기부터 개선·이전명령을 어기는 폐수배출업소에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 업소별로 정해진 부과금을 징수, 방지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하고 대기·수질오염의 대형배출업소 각1백군데를선정,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했다.

특히 업소가 많은 폐수배출공장에 대해서는 자동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유량계 오염측정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않고 있는것은 방지시설 설치후의 적정가동여부를 확인할만한 인력과 요원의 능력이 모자라고 가동비가 많이들어 업주들이 기피하기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있다. 【任赫淳기자】

◇"하나, 둘…"官街에 국민체조바람 공무원들의 국민체조 훈련모습. 정부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체육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고 보아 11일상오부터 일제히 공무원들의 체조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鄭在斗기자찍음】

定員초과 엘리베이터 墜落

明洞성모병원 脫出소동… 骨折傷 입기도

11일 하오1시45분께 서울 中區明洞2街1 가톨릭의대 부속明洞성모병원 1층에서 엘리베이터 1대가 지하로 4m가량 떨어지면서 면회객인 태유씨(55·여·서울江東區明逸洞명일아파트 1동111호)의 왼손목이 문틈에끼여 골절상을 입었고 엘리베이터 안내양 김정옥양(26)이 한때 실신했으며 면회객20여명이 탈출소동을 벌였다.

이날사고는 정원10명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20여명이올라타는 바람에 일어났는데 이 병원서무과직원 李萬旭씨(20)에 의하면 『1층에서 문이열리자 20여명이 한꺼번에 올라타 엘리베이터가 무게를 못이겨 지하로 떨어지다 바닥 1m를 남기고 멈춰섰다』고 말했다.

태안반도앞 馬島부근 海底 文化財 감시 보호지역으로

문화재관리국은 11일 충남瑞山郡 태안반도앞 馬島뒤해저 부근을문화재 감시보호지역으로 결정했다.

문화재관리국의 이같은조치는 馬島뒤 서남방 5백m 지점 30m해저에서 고려청자를 비롯한도자기 58점을 인양했다는 泰昌상사의 신고를 받고 취해진것이다.

이곳에서는 큰청자사발2점, 청자찻잔5점, 검은유약을 바른항아리, 조선후기 백자등이 인양되었는데 문화재관리국은일단 문화재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할때까지 민간인의 발굴을 중단시켰다.

馬島앞 바다는 예부터 한국과 중국또는 우리나라 남부무역의 요충지였으며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헌에는 풍랑심한 이곳에서 배들이자주 침몰했다는 기록이적혀있다。문화재관리국은지난81년 8월 이바다를 탐사했었으나 침몰선을 찾지못한채 조선조후기의 백자와 깨진백자조각을 건졌을뿐이다.

놋그릇·박탈등4種 무형문화재로 指定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택견을 비롯, 민족 전통생활과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여 온 놋그릇(鍮器), 入絲기능 및 인형을발에 씌워 연희하는발탈등 4개종목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새로 지정됐다。

11일 문공부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종목 추가와 동시에 택견의 宋德基씨(90·서울鍾路區 社稷洞130의2)·辛漢承씨(55·忠州市龍山洞426의7) 유기장의 金根洙씨(64·경기도안성군안성읍봉산동)·李鳳周씨(54·서울九老區始興洞920의30)·尹在德씨(69·順天市 辛金洞225의8) 입사장의 李鶴應씨(83·서울城北區貞陵4洞山16) 발탈의 李東安씨(77·충남아산군온양읍온천리23)등 7명을 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속칭 인간문화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중요무형문화재는 모두 76종에 보유자는 1백71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문공부는 이날조선조 高宗의 백부이며 興宣大院君의 둘째형인 興完君이사용한 의복16종 62점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였다.

돈주고 內定價알아내

土開公직원결탁… 오늘 全貌발표

4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매입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11일 기업관련자와 토지개발공사 직원에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형사처벌 대상을 최종확정, 12일상오9시 수사결과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4개관련기업의 임직원들이 토지공매때 담합입찰로 경쟁입찰을 방해한 사실및 이과정에서 2개기업은 토개공직원들과결탁, 금품을 건네고 내정가를 미리 알아낸사실을 밝혀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사건과관련, 소환된 30여명 가운데 9~10명정도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세우고 구속여부를검토중인데 이가운데 상당수가 불구속입건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기업주의 입건여부도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관련된 4개기업중 2개기업은 원소유자인 기업주의아들·사위·며느리들이 낙찰토록 하기위해토개공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내정가를 미리 알아낸뒤위장경쟁입찰자를 내세워 내정가를 약간 웃도는 가격으로 낙찰받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또 토개공직원과 금품수수사실이 없는 2개기업도 마찬가지로 들러리 입찰자를내세워 실질적인 단독입찰로경쟁입찰을 방해했음이 드러났

故張基榮社主 6周忌 어제 5백여人士 분향

故 百想 張基榮한국일보社主의 6주기를맞아 11일상오11시 廣州郡東部邑倉隅里黔丹山기슭 묘소에서 가족, 친지, 사우들이 추모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의간소한추모모임에는 金貞烈, 金聖鎭, 梁潤世, 金澤壽, 閔丙燾, 安秉煥, 朴鐘圭, 鄭一永, 盧錫瓚, 李鍾甲, 鄭宗植, 崔寅哲, 趙世衡, 林森, 李鍾緣, 李昇茂, 趙敬姬씨등 고인의 친지를 비롯, 5백여명의 전·현직사우들이 참석, 분향을 하며 고인의 유덕을 기렸다.

學科別 동문회중심 장학기금 造成키로 서울大

서울大는 장학금의 시혜확대를위해 각대학, 또는 학과별로 동문회를 중심으로한장학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서울대가 11일 발표한 장학기금 확충방안에의하면 각 대학이나 학과별 동문장학회를구성, 대학 또는 학과회, 직장별 또는 지역별 장학회및 교수와 개인적으로 유관한 기업체간부, 고위공직자를통한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편다는것.

서울대의 이같은조치는 과외금지조치이후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있는 학생들에게 학비충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외장학금을 늘리기 위한것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장학금재원의 90%가 학생의 등록금에의해 지급되었으며 교외장학금은 전체의 10%에 불과했었다.

訪美편집인團 송환 中共, 對美보복조치

【北京AP合同】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8명의 중공편집인團이 당초의 여행일정을 앞당겨 오는17일 北京으로돌아올것이라고 중공관영 新華社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테니스스타 후나(胡娜)양에게 미국에서 정치적망명을 허용한데 항의해서 중공당국이 취한 최초의 구체적 행동이다.

走行연습 승용차에 여중생등 4명死傷

서울倉洞서 리어카피하려다 人道돌진

운전면허를 따기위해 시내주행연습을 하던 회사대표의 승용차가 인도로 뛰어드는바람에 여중생1명이 숨지고모자등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냈다.

10일 하오3시20분께 서울道峰區倉2洞674 앞길에서 금영물산대표 金昌永씨(34)가 운전하던 서울1나8911호 포니승용차가 인도로 뛰어들어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던 朴恩慶양(14·淸源里여중2년)이숨지고 이동네 李明淑씨(29·여)와 李씨의 장남 영갑군(3)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金씨가 운전면허를 받기위해 운전자金순철씨(28)를 옆자리에 태우고 시내 운전연습을 하던중 갑자기길을건너는 리어카를 피하려고 핸들을꺾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것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일어났다.

金씨는 70년1월 운전면허를취득, 2년여동안운전을하다 적성검사 미필로 73년3월면허가 취소되자 운전사를 고용했었는데 최근다시 운전면허를 얻기위해 연습중이었다.

집앞서 흉기에찔려 20代주부 被殺

【釜山】10일밤 11시25분께 부산시海雲臺區佑2洞1067의57 안상철씨(28) 집앞길에서 안씨의처 정귀선(27)여인이 흉기에 등을 찔려 숨져있는것을 인근에사는 정주석씨(2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에따르면 갑자기 집앞길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들려 달려가보니 정여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숨져있었다는 것이다.

퇴폐행위團束 강화

관계法規 고치기로

정부는 11일 통금철폐이후 사회전반적으로 번지고있는 퇴폐행위를 단속하기위해 관계법규를 개정, 벌칙조항과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미용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한데이어 관련부처별로 미성년자 보호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식품위생법등의 개정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보사부관계자에 의하면 개정될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에는 퇴폐행위가 적발되면 1차경고 2차영업정지를거쳐 허가를취소하던것을 앞으로는 1차영업정지에 이어 2차적발때 곧바로 허가를 취소한다는것이다.

한편 보사부는 이같은방침에따라 이날 야간 풍속문란·청소년비행유발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했는데▲미성년자 학생등의 출입을묵인하는 디스코클럽▲제비족등으로 주부의 탈선온상이되는 카바레▲퇴폐 인삼찻집▲음란 비디오를 상영하는 맥주홀 살롱식야방및▲윤락녀를 고용하는호텔 여관등에대해 업종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도단속케하되 관계기관과합께 집중단속을 벌여 행정조치와 세무사찰을 병행키로 했다.

5行뉴스

◆일가족 살해범 自殺미수

【釜山】부산시影島일가족살해범 李대억(36)이 지난9일하오7시쯤 부산시南區廣安洞 여정여인숙에서 면도로 손목을 그어 자살하려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붙잡혔다. 【聯合】

萬원券위폐 나돌아 木浦, 전자복사한것

【木浦】木浦시내에서 전자복사한 1만원짜리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따르면 지난10일 밤10시께 木浦市陽洞131 李甲順씨(26)의 구멍가게에 16~17세가량의 소년이찾아와 1만원짜리 1장을내고 3천원어치의 과자를산후 거스름 7천원을받아 사라졌다는것. 【聯合】

밤登山 대학생숨져

짙은안개로 一行과 길 어긋나

【蔚山】10일 밤9시30분께 蔚州郡上北面 登億里 갈월산을 등반하다 실종됐던 부산수대 어로과 1년 김종필군(19)이 갈월산8백m 고지의 바위틈에서 숨진채로 발견됐다.

숨진 김군은 부산수대학생 6명과함께 10일 하오2시께 경북密陽郡표충사를출발, 갈월산 정상에 올랐다가 이날 하오9시께 하산도중 짙은안개로 일행과 이탈, 실종됐었다. 【聯合】

서울大生 6명구속 校內시위 主動혐의

서울冠岳경찰서는 11일 서울大생 申秀澈(22·자원공학과4) 曺東植(22·전자공학과4) 王定贊(22·건축과4) 金基正(22·철학과4) 尹聖柱(22·동양사학과4) 李在元군(22·국문과4)등 6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8일 낮12시50분께 冠岳캠퍼스23동과 제4식당 등에서 반정부 유인물 3백여매를뿌리며 교내시위를 주동한 혐의다.

불량우유배달 단속 釜山市

【釜山】부산시는 11일 우유가공 공장과 대리점등에대해 매주 1회이상 검사를실시, 검사기준에 불합격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하면 강력한조치를 하기로했다.

시는 우유업체의 대리점이 냉장고가없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우유를 공급해주지 못하도록하고 학교급식우유를 당일 처리되지 않은것을 배달, 식중독이 발생하는일이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또우유수송차량을 시설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신속히 운반토록 했다. 【聯合】

표주박

서울大서클등록 작년보다 9%증가 마감연장후몰려 학생들 意外의표정

◇…서울大의 서클등록 마감결과 본부등록 서클이 68개·단과대학등록서클이 3백33개로 나타났다.

이같은 등록현황은 지난해본부61개 단과대 3백9개보다 각각 9%와 13%씩 증가된것이다.

이같은 증가 현상에대해 학교측이나 학생들은 뜻밖이라는 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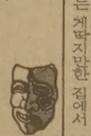
이는 당초서클등록 마감일이 본부가 지난달25일, 단과대 21일이었으나 본부의경우 단 한건도 등록신청이 들어오지않고 단과대도 1백60여개만이 들어와 등록마감일을 각각 31일 29일로연기하는 소동을 빚었기때문.

韓·美안보협의회 報道차 申鉉鈺기자 向美

한국일보社 사회부 申鉉鈺기자(사진)는 오는14~15일 이틀동안 미국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취재, 보도하기위해 10일하오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했다.

"챔피언 먹겠다" 킹스컵복싱 金메달 딴 金光善군

回甲맞는 어머니에 메달膳物 안겨



복싱팬치고 「헝그리복서」란말을 모르는 사람은없다。배고픔과 싸워야했던 불우청소년들이 이를악물고 권투로 입신하는 과정을사람들은 배고픔으로 응어리진울분을 링위에서 폭발시킨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국이 5년만에 종합우승을되찾은 제9회 킹스컵아마복싱선수권대회에서 홈그라운드의 산풀·상가노를 물리치고 라이트 플라이급에서 금메달을딴 金光善군(19·사진)도 헝그리복서다.

金군의 고향은 群山 바다가 보이는 게딱지만한 집에서 6순의 부모와 함께 살다 光銑(32)·光明(24)두형을 따라 11살때 서울로 올라왔다. 「구두닦이3형제」의 막내로서 서울살이가 시작된 것이다. 다행히 일찍 서울로 진출한 두형이 구두닦이터를 잡아놓았으나 서울살이는 쓰라리기만 했다. 서울역와 陽洞무허가하숙집이나 빌딩관리실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열심히 일했다. 비닐우산과 신문을 팔기도하고 구두통을 메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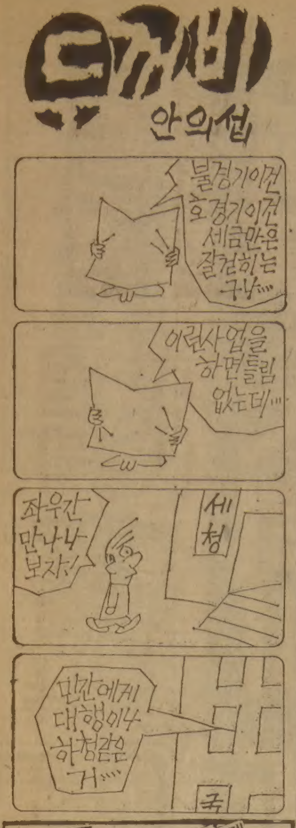
이러한 고난속에서도 배우지못한것이 한이된 큰형의 뒷바라지로 학교를 다닐수있었고,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었다. 漢陽공고에 다니던때, 어느날 불현듯 권투선수가 되고픈 생각이 들었다. 한국체육관문을 두드렸으나 키가 더 큰 다음에 오라고 퇴짜를 맞았다. 그러나 물러서지않고 악착같이 매달려 글러브를 손에 낄수 있었다.

이때부터 정신없이 샌드백을두드렸다. 연습에 열중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배고픔등 모든것을 잊을수 있었다. 차차 기량이 늘었다. 학생선수권을 차지한뒤 눈을 밖으로 돌려 인도네시아대통령배와핀란드 국제아마복싱등메달로 승승장구, 지난해 킹스컵 은메달에이어 이번에는 우승을따냈다.

이번킹스컵대회에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다해 싸웠다. 가난속에서나마 올바르게 이날까지 키워준 어머니의 회갑이 20일로 다가와 회갑선물로 어머니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었다.

10일 金메달을 걸고 귀국한 金군은 『저도 洪秀煥형처럼 챔피언을 먹겠읍니다』며 도전의길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다짐한다. 【薛熙潭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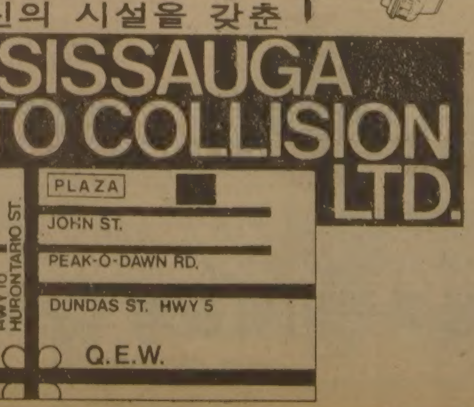
도깨비 안의섭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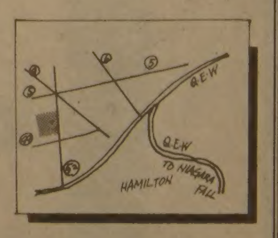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헌

제4회 총영사배쟁탈 골프대회

□일　　시: 1983년 5월7일(토요일) 10시정각
□장　　소: FLAMBOROUGH HILLS GOLF CLUB ☎627-1743
(구 WINDSOR.PARK GOLF CLUB)
□참가자격: 한인골퍼 예상인원 : 60명
□참 가 비: 35불(그린피및 스테이크디너)
□시　　상: 총영사배(챔피온)
GROSS : 1,2,3등
NET A,B,C조에 각각 1,2,3등
A조 1등 : 해밀톤 한인회장배
B조 1등 : 해밀톤·벌링톤 실업인협회장배
LADY 1,2,3등
LONGEST 상　NEAREST 상
행운상　기타부상

TORONTO : 이기훈 298-3584
HAMILTON : 이창희 639-3139
차인규 (R)336-2280, (B)639-0773
김형봉 (R)662-7662, (B)662-7409
신경순 389-0862



주최 : 해밀톤 한인골프협회
후원 : 토론토총영사관
해밀톤한인회　해밀톤·벌링톤 실업인협회

"역시 金在博" 타격 先頭에

青龍·롯데戰에서 9회말 2점호머로 역전승 수훈

프로야구 타격부문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 시즌막판에 등장, 13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던 MBC의 金在博이 날카로운 스윙, 빠른다리, 재치있는 판단등 천부의 솜씨를 살려 7게임에서 20타수 10안타, 타율 5할을 기록, 타격선두를 달리고있다.

金在博은 11일 롯데와의 2차전에 MBC 2번으로 출장, 9회말 대역전극에서 2점홈런을 날리는등 3타수 2안타 1득점 3타점을 올려 MBC가 9-8로 역전승하는데 기여했다.

三星의 朴承昊는 5게임에서 19타수 9안타 타율 4할7푼4리를, 롯데의 金在相은 5게임에서 15타수 7안타, 타율 4할6푼7리를 기록, 선두 그룹에 올랐다.

지난해 타격왕 白仁天은 20타수 4안타(0·200), OB의 尹東均은 24타수 6안타(0·250), 해태의 金峰淵은 11타수 1안타(0·091)로 부진, 아직 제몫을 하지 못하고있다.

타점서는 롯데의 朴庸成이 9타점, 도루서는 MBC의 李海昌이 4개, 수비실책서는 三星유격수 吳大錫이 5개로 각부문 1위를 마크하고 있다.

10일 대구 홈경기서 三星은 6회말 無死1·2루에서 등장한 4번 張孝祚가 OB 베어스의 구원투수 黃泰煥을 3점 홈런으로 두들겨 대세를 결정짓고 6-4로 낙승했다.

MBC는 잠실경기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9번 鄭永基의 역전결승타, 5번 李鍾道의 동점2루타, 2번 金在博의 2점 호머등으로 5득점, 롯데에 9-8로 역전승했다.

이날 MBC는 3개, 롯데는 1개, OB와 三星은 2개씩의 실책을 범하며 대량 득실점을 기록, 프로선수로는 부끄러운 수비를 보여주었다.

◇타격10걸 <10일현재>

	타수	안타	타율
①金在博(MBC)	20	10	·500
②朴承昊(삼성)	19	9	·474
③金在相(롯데)	15	7	·467
④金城漢(해태)	11	5	·455
④金鍾模(〃)	11	5	·455
⑥柳斗烈(롯데)	18	8	·444
⑦金漢根(삼성)	18	7	·389
⑦張孝祚(〃)	18	7	·389
⑨朴庸成(롯데)	21	8	·381
⑩徐定煥(해태)	11	4	·364

◇10일전적

◆대구

OB	000	100	300	4
삼성	000	203	10×	6

▲홈런=張孝祚(6회·3점) 金瑠錫(7회·이상삼성) 具千書(7회·2점·OB)

◆잠실

롯데	160	000	010	8
MBC	000	110	205	9

▲홈런=李光殷(4회) 金在博(9회·2점·이상MBC)

◇중간순위<10일현재>

	승	무	패	차
①MBC	4	0	3	—
②해태	1	1	1	0.5
②삼미	2	0	2	0
②삼성	2	1	2	0
②OB	3	0	3	0
⑥롯데	2	0	3	0.5

백호기야구 3일째

成大、中大누르고 2회전에

延大는 홈런3발로 檀大에 大勝 내일 高大와 첫接戰

6번타자 朴載燦이 솔로·홈런과 결승2루타로 3타점을 혼자 올리며 맹활약한 成均館大가 中央大에 3-2로 신승, 延世大와 함께 33회 백호기 야구선수권대회 2회전에 합류했다. 成均館大는 12일 浦鐵과 2회전을 벌이며 延世大는 13일 高麗大와 금년 첫 延·高야구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11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3일째 1회전 경기서 成均館大는 1회초 中央大 6번 具浩에게 우월 솔로·홈런을 맞아 1점을 선제당했다. 그러나 2회말 공격에서 成大는 6번 朴載燦이 좌월 1백25m 홈런으로 응수, 동점을 만들고 8회말 만루에서 朴載燦이 중앙펜스를 맞히는 통쾌한 2타점2루타를 날려 3-1로 앞섰다.

成大는 마지막수비에서 선발로 나와 쾌투를 보이던 언더핸드 韓福敏이 中央大 선두 李光根에게 솔로·홈런을 맞은 후 4번 金亨錫에게 포볼, 5번 卓載原에게 중전안타를 허용, 無死1、2루의 위기를 맞았으나 릴리프로 등판한 좌완 尹錫瓚이 후속타자를 범타로 막아 3-2로 승리했다.

延世大는 4회말 3번 金成炫의 2루타등 3안타와 포볼, 패스트볼등을 묶어 5、6、7회에 金成炫, 金泰業, 金淙均이 각각 솔로·홈런을 터뜨려 檀國大에 6-2로 승리했다.

오늘 爭覇

高麗증권 金星 現代 美都波

팀웍(金星)이냐 패기(高麗증권)냐

現代、美都波 설욕할까

實業배구 1차연맹전

◇블로킹 부수는 殺人的공격. 여자부 준결승전서 現代의 金英淑(左10번)이 金松根(8번)과 함께 뛰어올라 韓一合纖 블로킹 벽을 향해 강타를 넣고있다. 現代가 3-0으로 완승.

金星의 노련과 팀웍이냐, 신생高麗證券의 패기냐. 現代가 지난3월 종합선수권대회부터 美都波에 당한 참패를 설욕할수 있을까.

실업배구 1차연맹전은 패권의 향방을 점치기 힘든가운데 11일 준결승전을 마치고 남녀부 결승진출 2개팀씩을 가려냈다.

8일째 경기에서 金星은 첫 세트초반 한때 게임이 안풀려 고전했으나 이후 팀웍을 되찾아 姜斗泰 嚴漢佳등 장신들의 활약에 힘입어 韓國電力을 3-0으로 물리쳐 高麗證券과 12일 남자부 정상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高麗證券은 10일 現代自動車서비스를 3-1로 제압, 결승전에 선착했다.

여자부 준결승서는 美都波와 現代가 각각 道路公社와 韓一合纖을 3-0으로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美都波의 2인세터·시스팀은 李云任·朴美姬로 이어지는 서서히 완성단계에 다가가고 있다.

지난2월 신춘연맹전、3월 종합선수권때만해도 美都波2인 시스팀은 불안정, 막상 중요게임서는 李云任을 축으로한 1.5시스팀으로 원대복귀했다. 그러나 이번 1차연맹전 준결승전까지 朴美姬는 세터기량면에서 눈에 띄게 좋아졌다. 朴美姬는 이날 道路公社와의 준결승서 각각이 A·B퀵·토스로 공격수들을 이끌며 분전했다.

그러나 실업팀에 들어와서 처음 맡은 세터로서의 포지션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 주특기인 센터에서의 블로킹과 시간차 공격등에서 다소 헛점을 드러내보이고있다.

한수아래의 전력이지만 부담없는 경기로 現代를 괴롭히던 韓一合纖은 이날따라 콤비·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않아 범전에 물러났다. 現代는 2、3세트서 咸璨熙·金鍾順등 2진들을 기용하는 여유를 보이며 쾌승했다.

◇제8일준결승전

▲여자부

미도파 3 (15-9 15-2 15-8) 0 도로공사

현대 3 (15-7 15-4 15-2) 0 한일합섬

▲남자부

금성 3 (15-6 15-3 15-12) 0 한국전력

올림픽맞아 부드러운 競技場用 잔디개발

서울大 農大연구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용 잔디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있는가운데 잎이 조밀하게 돋아 표면피복률을 높일수있고, 잎이 부드러운 잔디를 생산할수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결과는 서울대농대 廉道義교수가 지난77년부터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실시하고있는 한국들잔디개발연구에서 나타났다. 연구방법은 잔디씨앗에 일종의 식물호르몬제인 콜치신(COLCHICINE)을 처리, 염색체의 돌연변이를 유발시켜 우수한 경기장용잔디를 만드는것.

廉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야생하고 있는 잔디는 금잔디와 들잔디·비로드잔디·갯잔디·왕잔디등이 있는데 이중 들잔디는 현재 서울운동장을 비롯한 일부경기장에 조성돼있으나 이 잔디는 피해를입을경우 재생이 늦고 잎이 드물게 돋아나며 거친데다 잎이 누렇게 변해 경기장용으로는 적합치않다.

현재 廉교수가 개발하고있는 경기장용 잔디는 잎이 조밀하게 돋고 연간 20배가량의 번식이 가능하며 잎의 면적이 넓고 부드러우며 잎의 기공(氣孔)도 밀도가적어 수분증발을 억제, 땅이 어느정도 마르더라도 견디는 힘이 강하다는 것이다.

廉교수는 『앞으로의 과제는 마구밟아도견디는 힘이 강한 잔디를 개발하는것과 들잔디가 5월에 푸른빛이 돌기시작, 10월초에 누렇게 변하는 결점을 개선, 푸른기간을 연장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水原=聯】

코너즈 산토리컵 차지

결승전서 보리에 2對0으로 完勝

【東京10日AP=聯】 서울초청경기서 승리를거둔 지미·코너즈(30·미국)는 10일 일본東京 요요기체육관에서 열린 산토리컵테니스 결승전에서 비외른·보리(26·스웨덴)를 2-0(6-3 6-4)으로 꺾고 우승했다.

3·4위전에서는 존·매켄로(미국)가 동료 요한·크리에크(아르헨티나)를 2-1(6-7 7-5 6-3)로 눌렀다.

총상금 25만달러가걸린 이 대회서 1위인 코너즈는 11만달러를 받았으며 2위 보리는 7만달러, 3위 매켄로는 4만달러를 각각 받았다. 9일 준결승전서는 보리가 매켄로를 6-4 2-6 6-2로 이겼으며, 코너즈는 크리에크에 1-6 6-3 7-5로 역전승을 거두어 결승전에 올랐었다.

◇결승전

코너즈 2 (6-3 6-4) 0 보리

張在根 韓國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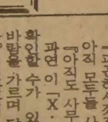
200m20초F 허들·7종서도 나와

陸上기록회 폐막

뉴델리아시안게임의 금메달리스트 張在根(성균관대)은 10일 서울운동장서 폐막된 올해 육상시즌오픈기록회 최종일 2백m에서 국내신기록인 21초F(수동계시)를 마크, 건재를 과시했다.

張의 뉴델리 아시안게임기록은 전자계시로 20초89인데 이날기록은 전자계시로 환산하면 21초24에 해당된다. 2백m 수동계시 종전한국기록은 21초1로 79년6월 徐末九가 작성한것.

한편 尹炯根(성균관대)은 남자4백m 허들에서 53초1(종전 53초6)、池貞美(경남은행)는 여자7종 경기에서 4천9백46점(종전 4천9백44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추가했다.



533-2361

5년만에 霸權되찾아

킹스컵복싱 金光善·許永模·金東吉 金메달

【방콕=聯】 한국은 9일 방콕후아마크경기장서 벌어진 제9회킹스컵국제복싱대회최종일 결승전서 金光善(라이트플라이급), 許永模(플라이급), 金東吉(라이트웰터급) 3명이 각각금메달을 따내 금3、은3、동메달3개로 지난78년 제4회대회이래 5년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이대회우승팀인 소련은 금2、동4개로 준우승, 금메달만 3개인 케냐는 3위를 차지했다.

第14期 名人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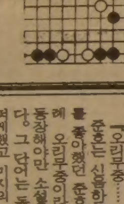
挑戰者決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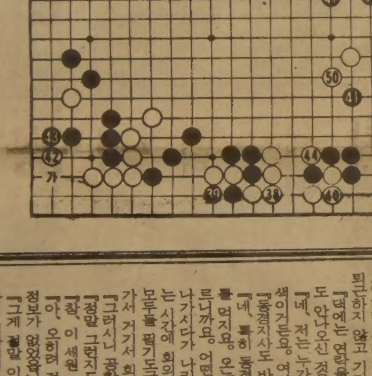
第14局 第3譜 38~57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 〈1勝2敗〉

黑(7段) 盧永夏 〈2勝2敗〉

역을찌른 패싸움





徐6단은 한번의 작전실패를 용하게 수습했다. 黑39를 강요하고 白40으로 整形한것이 그것. 더구나 그간 소홀히했던 좌하귀에 白42를 선수하고 다시 44로 붙여 확실히 안정해서는 한시름 놓은셈이다.

그동안 黑이 41로 좌하귀 「가」자리에 달리 찬스를 놓치고 머뭇 白44마저 두게한것은 아까왔다. 특히 黑이 44로 잇게되면 이곳白전체의 근거가 없어지는것이다. 忙中閑처럼 보이는 白44가 이른바 정수인 연유이다.

이뒤 黑7단에게 불길한 착점이 계속 나타났다. 우선 黑45, 徐6단은 우상귀는 보류하고 黑「나」등으로 응수할까 무척 걱정스러웠다고 한다. 다음은 白54때 黑55가 독선적이었다. 원래 黑7단은 참고도의 黑1이 할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먼저 黑「A」와 白「B」를 교환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고 속단한 것이다.

따라서 白56은 역을 찌른 반발. 이리하여 뜻하지않던 패싸움으로 운이 일어났다. 【一仁】

땅끝에서 오다

金成一 作 宋龍 畵 <30>

안개속에서 온 密書⑧

김포공항에는 본사 직원이 역시 세명씩이나 마중을 나와 있었다. 그들과 악수를 하면서 준호는 비로소 자기가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것을 실감할수 있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아홉시가 넘어 있었다. 비행기 도착은 여덟시 사십분이었지만 입국수속과 세관통과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흘렀던 것이다.

그들 일행은 즉시 대기하고 있던 본사 승용차에 올라탔다.

『피곤하시겠지만 우선 사무실로 가셔야겠군요. 아직 모두들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무실에……?』

과연 이 「X·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었다. 승용차는 한밤의 김포가도를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있었다. 차는 레코드·로열이었다. 리진룹산의 관례로 보아 중역급이 타는차였다. 그렇다면 본사의 사무실에는 아직도 누군가 중역이 퇴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였다.

『댁에는 연락을 안하신 모양이죠? 공항에 아무도 안나오신 것을 보니……』

『네, 저는 누가 공항에 나오고 하는 것은 아주 질색이거든요. 여러분의 경우는 특수한 것이지만』

『동경지사도 바쁘시지요?』

『네, 특히 동경지사는 그 공항 행사 때문에 늘 애를 먹지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모두를 동경엘 들르니까요. 어떤 때는 회장님께서도 미국 쪽으로 나가시다가 나리따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회의를 갖는적도 있답니다. 그럴 때면 모두들 필기도구와 자료들을 가지고 공항으로 나가서 거기서 회의를 하지요』

『그러시니 공항 마중이 질색이실 수밖에』

『정말 그런지도 모릅니다』

『참, 이 세원 부장의 소식은 좀 없읍니까?』

『아, 오히려 정말 제가 묻고 싶은 일입니다. 무슨 정보가 없었읍니까?』

『그게 정말 이상하거든요. 정보가 전혀 없읍니다. 파리 지사에서도 백방으로 알아보는 모양인데 오리무중(五里霧中)이랍니다』

『오리무중……』

준호는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특히 추리소설 읽기를 좋아했던 준호였다. 그 추리소설을 읽을때면 으레 오리무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고 그 단어가 등장해야만 소설은 읽을 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단어는 독자로 하여금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게했고 미지의 결말에 대한 신비한 흥분을 불러일으켜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준호의 오랜친구요, 숙명적 라이벌인 이 세원이 바로 그 오리무중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저… 이부장의 부인께서는 지금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연락을 하지않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진그룹에서는 해외근무자 가족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을 놀라게해서는 안된다는 배려입니다』

『하지만……』

『이제겨우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읍니까? 어차피 내일쯤은 연락을 해야될지 모르지요』

張吉山

黃晳暎 作 崔然石 畵 <1713>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73)

아사달 옛터전 단군 성조님의 뜻이 새겨 있으니 너는 가장 크고 깊은 신의 뜻을 이어 받은 만신이 되어야만 한다. 네가 서해용왕님이 지시하신 용녀이고 구월산 삼신님의 몸주받은 큰무당이니라. 이 땅의 서편에서는 너보다 더 큰 성신을 모신 이가 없다.

원향은 동침으로 젖은 요령과 신칼 그리고 징과 바라를 이전 아무당의 낡은 철릭에 함께 싸서 눈여겨 둔집으로 가져다가 선반의 먼지를 털고 얹어 두었다.

마당의 잡초를 뽑고 샘에서 물을 길어다 툇마루에 켜켜로 앉은 먼지를 닦아냈고, 밤에는 우선 마른짚을 펴서 잠자리를 마련하였다. 사람의 손이 가니 제법 귀신의 형용은 사라진듯 하였고, 습기를 말리느라고 아궁이에 불을 때어 매캐한 청솔 타는 연기가 주위에 가득하니 제법 폐촌에 인적이 생겨난 것같았다. 봇짐에 가져온 곡식이 말가웃 되었으니 한되 남짓은 덜어내어 신당 차릴 선반에 얹고 향촉은 준비가 없어 그대로 지내기로 하였다. 낮이은 샘에 찾아가니 역시 쑥밭 잡초 덤불인데 왕개구리들이 놀라서 이리 저리로 투다거리며 뛰어 달아났다. 원향은 돌 위에 올라서서 옷을 차례로 벗었다. 석양이 나뭇잎 사이에 발갓거리는데 물은 차갑고 투명하였다. 깨어진 옹기로 물을 담뿍 떠서 목덜미께에 부었다. 머리 끝이 주뼛하고 시린 느낌이 등줄을 타고 내려 발 뒤꿈치까지 뻗쳐 내려갔다. 다시 가슴에 부으니 젖을 타고 흘러내려 아랫배를 지나 무릎으로 흘러 떨어졌다. 원향이는 샘물로 온몸을 정히 씻고 머리를 감고 다시 이리저리 널린 세간을 정돈하여 이 빠졌으되 형체는 그대로인 흰 사기대접을 내어 옥수(玉水)를 떠서 신당 앞에 바치고 예전처럼 기도를 올렸다. 정신이 한곳으로 쏠리면서 차츰 사위를 잊어갔고, 눈 앞에 무수하게 흰 옷 입은 영산들이 흘러 지나가는 게 보였다. 그들은 얼굴도 없었다. 다만 허연 자취뿐이었다. 그들 가운데 준보와 모친이 섞여 있을지도 몰랐지만 아마 무덤을 앞에 섰을 때와는 달랐다. 그것들과 원향의 사이에는 엷은 안개 같은것이 가로쳐져있었고 원향이도 그안으로 생각이 쏠리거나 넘나들지않고서 그저 부동하여 흘러보낼 따름이었다. 다시 짙은 어둠이 계속 되었다. 얼마나 되었을까, 눈앞이 다시 부옇게 되더니 밖에서 홀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원향아, 내 아기 원향아. 문살 틈으로는 어느결에 떠올랐는지 달빛이 새어들어 방안이 훤하게 밝아 있었고, 원향이 문을 밀자 바로 허공 웃음을 머금은 듯한 봉우리의 하얀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황토월(思皇吐月)이었다. 구월산의 제일봉인 사황봉 위에는 단군천왕당이 있었으며 만신들뿐 아니라 인근 백성들은 아직도 새 봄이되면 풍년을 비는 재를 올렸으니 하늘님을 그리다하여 사황봉이다. 사황토월은 동천에 높이 솟아오른 달빛을 받은 봉우리가 인자한 하늘님의 얼굴로 나타나 뵈는 모양을 일컫는것이다. 원향은 어릴적부터 그모습을 우러러 뵈어 왔으나, 이제 문득 자기를 부르는 소리와 더불어 대하니 산전체가 고개를 수그리고 웃으면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것만 같았다. 온몸이 짜릿하며 봉이 몸 속에 들어오는 듯하였다. 오너라, 아가야. 산은 우렁우렁하는 소리로 원향을 부르고 있었다. 원향은 저도 모르게 숲과 잡목을 헤치고 눈에 익은 비탈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정곡사(淨穀寺) 가는 길을 휘돌아 용못(龍沼)으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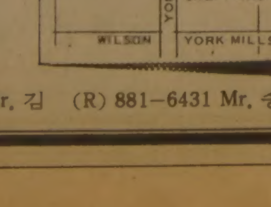
동아식품

그랜드 오프닝

저희 두 사람이 뜻과 정성을 합하여 교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장소에 식품점을 개점하게 되었읍니다.

5월초에 개점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송종호·김홍배 드림



5568 YONGE ST. (R) 663-1339 Mr. 김 (R) 881-6431 Mr. 송

성전구입바자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

중앙새성전 조감도

품 목

- ★점 심
- ★주 식 료
- ★떡 종 류
- ★선 물 용 품
- ★의 류
- ★카셋테이프
- ★생활필수품
- ★조 미 료, 밑반찬
- ★김치, 고추장, 된장
- ★경 품
- ★화초류와 성도의 출품

때 : 1983년 4 월23일(토) 오전9시~오후7시

곳 : 502 Bathurst St. (at College)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토론토 중앙교회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분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가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찬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총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파트타임 스토어 헬퍼 구함.
유경험자원함. 남녀불문.
전화 : 691-3666. Mr. 리.

파트타임, 샐러드 만드실분 구함.
9:00a.m.~1:00p.m. 주6일 경험 필요없음.
전화 : 421-9144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여자분 원함. 다운타운지역.
전화 : 925-0339

직매점 경영하실분 구함
토론토 시내 관광객으로 붐비는 호텔 몰안에 있는
밍크직매점(기타) 전화 : 532-8662, 535-7878

2살 이상인 애기 봐드립니다.
정원이 넓어서 애기 놀기 좋음.
전화 : 745-0939 Mrs. 정

가게 맡아서 하실분.
주매상 현재 2천불.(더 올릴 수 있음) Rent $200
전화 : 691-4426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남자헬퍼 1명, 여자헬퍼 1명구함
628 Bloor St. W. Tor. 전화 : 536-0290.

식품점에서 일할 젊은이 구함.
오후6시-오후 10시까지(주7일간). 시간당 $4
원하시는 분은 삼복식품으로 직접내방 바람

◉ 사 원 모 집 ◉
무역사원을 모집합니다.
* 자격여건 : 대학졸업자.
* 무역실무경험. 영어능통. 남·녀사원.
* Start 년봉 25,000불
Call : 677-4749. PENDRITH CO.

Dishwasher 구함.
오전 11:30~오후2:30. 월-금요일
전화: 421-6016. (오후 2시반 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어
리스 또는 매니지먼트. 주매상 $9,000
전화 : 251-3559(12:00~6:00pm)Mr. 송

풀타임 경험있는 캐쉬어 여자구함
전화 : 465-8167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신부 구함. - 진실하고 건강한 여성 구함 - 저는 45년생 (시민권 소지자)으로 개인가게를 갖고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랍니다. 전화 : (B)273-3920, (R)273-9821 Mr.리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중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매 매

한국 전통의 고가구 팝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저녁7시부터 9시까지)
전화 : 248-6531 Mr. 김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빵가게 (프라자내)
$50,000(도구 포함). LEASE(5 YRS)
Dufferin & Steele. Call Susan Tallilo 745-7551

금고를 이용하세요!!
•완전써비스 •각종모델 •100불부터 보험가입
•자세한 사항은 690-8950 David

Food Store.
Plaza안에 있고 좋은 Turnover
전화 : 745-2300 Jim Taylor. Re-Max West Realty Inc.

드라이크리닝 & Laundry 완전 도구 매매
전화 : 593-5454, 276-7245 Mr. Angelo

비데오머신 매매. 새 프로그램 모든 종류 있음
가격: 대당 $1,700
전화 : 924-559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건물포함) 주매상 $6,000
전화 : 1-547-0841 Mr. 조

그로서리가게 매매. $15,000. 다운타운 지역.
적은 렌트. 긴 리스. 매상오를 가능성이 많음.
Well Realty Inc. 전화 : 596-8170 Mr. Tong

3개월 사용된 선반달린
20 ft. Vegetable Cooler 급매
전화 : 421-6880 Mr. 리

MEAT SHOW CASE(고기냉장)길이 12피트(ft)
537-1664 Mr. Foto. 972 Ossington Avr.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주매상 $7,000이상+건물
전화 : 921-4283(오후1시-3시사이)
456 Gerraed St. E.(at River)

보석·선물가게 매매
주인이 은퇴함(외국사람)
전화 : 742-7399 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5년리스(렌트 $1,100) 아스킹 4만+스탁(로타리오머신 및 비데오머신 2대)
전화: 535-1916

(1)주택 2 Bedroom Yonge/Lawrence $91,900
(2)주택 4 Bedroom Yonge/Eglinton $189,000
(3)주택 4 Bedroom Keele/Finch $179,000
(4)주택 2 Bedroom Eglinton/Marlee $67,900
(5)Store+3 Bedroom Queen/Parliament $169,000
(6)Store+3 Bedroom Queen/Leslie $99,900
(7)주택 3 Bedroom Yonge/Finch $129,000
(8)Fish Chips Dufferin Mall $24,900
Canada Permanent Trus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최신형 고급 카메라(신품) 매매
라이카 M4-P, 90mm 렌즈, 와인더, 메타, 케이스
Regular 가격 : $2,500, 파는 가격 : $1,740
★ 꼭 사실 분만 연락요망.
전화 : 630-5474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베출러 Sublet
전망좋음. 즉시 입주 가능. 월$319
전화 : 533-8197. King & Dufferin

아파트 임대. Large 1 Bed Room.
수영장, 사우나있는 고급 아파트.
$410/Month. Mr. 리. 전화 : 863-6072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8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숀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바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83년4월23일·토 오후 6시

힐튼·하버캐슬 호텔 1층

연예프로그램

향수어린 정서가수 장 연 화
매력적인 드럼의 주자 권순근과 ADD－K
사회의 거장 지미・김 / 이쁜이 강 종 희

미인에게 파격적 대우

진— 서울 왕복표, 현금 $1.500등 상품다수.

선— 현금 $500등 상품다수 **미**— 현금 $300등 상품다수

폭발적인 인기리에 매진박두! ※많은 경품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입장권이 매진 임박하고 있아오니, 한국일보사나 아래의 집행위원들로부터 미리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당일 대회장소에서는 매표를 하지 않습니다.)

● 한국일보사 : 533－2361 ● 강공선 : 533－7923 ● 김원동 : 244－9073 ● 김진현 : 759－8349
● 윤방현 : 239－5255 ● 이대환 : 535－1251 ● 남지연 : 881－5590 ● 이창성 : 960－0074
● 홍기만 : 249－3694 ● 이광민 : 274－8889 ● 김현옥 : 690－1197

★입장권 : $30(디너, 댄스, 도어 프라이즈 포함)

주최 : 토론토한국일보사

후원:한인연합회, 토론토한인회, 영사관